

리아호나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진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기,
24쪽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18쪽

새로운 교회사 시리즈 보기, 30쪽, 32쪽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메시지, 4쪽.



32 성도들: 교회 이야기 — 제1장:
 믿음으로 구하고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스미스 가족은
 팔마이라로 이사했다. 불안한 마음에
 조셉은 기도를 드렸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1** 교회에서 봉사하며: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리차드 엠 롬니
- 12**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제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태드 알 콜리스터
- 16** 연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혀 주셨기에
 레이첼 에이치 리섬
- 38** 신앙의 초상
 파인가 팡구나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복음은 모든 진리를 망라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항상 그를 기억하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원리:
 방문 교육 대상 자매와 그 자매의 가족을 알아 간다.

특집 기사

- 18**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
 테리 비 볼
 베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특별한 증언을 더 잘 준비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 24** 종교의 자유: 평화의 주춧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여러 철학이 상충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을 모아 종교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 30**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스티븐 이 스노우 장르
 여러 권으로 새롭게 출간될 교회사 시리즈에 관해 알아보자.



표지 삽화: 조슈아 테니스



44

44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

리드 타테오카
끔찍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으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

48 가족을 위한 선교 사업

안드레아 고메스 라구네스
나는 수술 후에 귀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선교 임지에 남도록 승인을 받았다. 이제 나는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떤 재능을 나눌 수 있나요?

50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원
엠 러셀 블라드 장로
세상은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

54 세상의 평화 vs. 그리스도의 평화
새라 헨슨
세상의 어리석은 가르침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56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금하지 못하실 거예요
블로섬 래리노
가나에서 교회 활동이 금지되었을 때, 나는 간증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58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신다. 주님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결심하자.

60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니노스카 나우랏
나의 친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너무 걱정스러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62 포스터: 영생

63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니파이전서 3:7

64 질의응답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6



74

66 교회의 편에 서서
트레이시 카터 및 머리사 데니스
이스튼과 새로 사귄 친구
지안마르코는 반 친구들에게 교회에 관해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68 빛을 비추라: 재능을 나눔
머리사 위디슨

70 행복의 계획
이 그림책을 색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72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73 계속 노력하십시오!
피터 에프 웨르 장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이 재능과 간증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74 연차 대회 인용문 카드

75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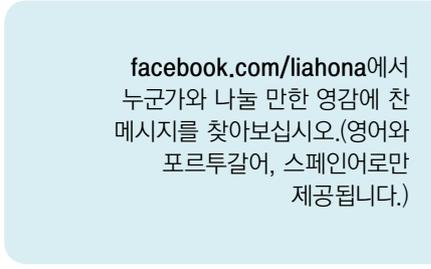
76 경전 이야기: 아담과 이브
김 웹 리드

79 색칠하기

인터넷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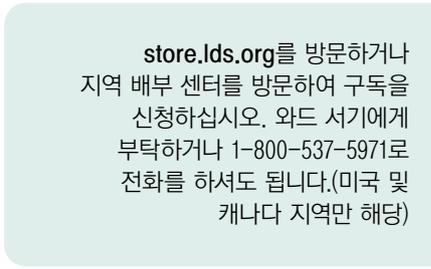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치기, 12
- 선교 사업, 44, 48, 56, 66
- 자애, 7
- 가정 복음 교육, 40
- 성전, 75
- 재능, 38, 68, 73
- 가족, 10, 48, 75
- 성찬, 4, 58
- 조셉 스미스, 32
- 가족 역사, 43, 48
- 순증, 16, 63, 79
- 종교적 자유, 24
- 간증, 16, 18, 56, 66, 73
- 아담과 이브, 76
- 진리, 80
- 겸손, 12
- 언어, 64
- 축복사의 축복, 38
- 경전 공부, 43
- 역경, 44, 48, 54, 56, 60
- 침례, 75
- 교회 부름, 11, 12, 58
- 연차 대회, 74
- 평안, 24, 50, 54, 60
- 교회 역사, 30, 32
- 예수 그리스도, 4, 12, 18, 50, 54, 58, 62, 70, 72
- 하남님 아버지, 58, 62, 70
- 구원의 계획, 70
- 54, 58, 62, 70, 72
- 회개, 4, 50
- 물문경, 75
- 우울증, 54, 60
- 봉사, 7, 11, 42, 68
- 우정, 7, 41, 60, 64, 66

아이콘: GETTY IMAGES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항상 그를 기억하고

선 지자 모로나이가 금판에 물몬경의 마지막 구절을 새겨 넣는 모습을 저와 함께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과 동포, 그리고 가족이 멸망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땅에는 “일련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물몬서 8:8)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할 수 있었던 모든 말씀 중에, **기억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모로나이사 10:3 참조)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께서는 사전에 실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다**라고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성약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¹

기억하다라는 말은 경전 곳곳에 등장합니다. 니파이는 형제들을 훈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고 권고하곤 했습니다.(니파이전서 15:11, 25; 17:40 참조)

베냐민 왕은 위대한 고별사를 전하며 **기억하라**는 말을 일곱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 [그들을] 향한 그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길 바랐습니다.(모사이야서 4:11; 또한 2:41; 4:28, 30; 5:11~12 참조)

구주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며 제자들에게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여 그 상징물을 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누가복음 22:19) 모든 성찬 기도문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다** 앞에 옵니다.(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저는 여러분께 간청하는 마음으로 권고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매주 성찬식에서 성스러운 상징물을 취할 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이를 통해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구주를 기억하십시오. 지상에 계실 때 그분께서 어떤 분이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친절을 보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사도행전 10:38) 그분은 병든 자를 찾아가 보셨으며, 전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지은 죄의 얼룩을 지워 주시고자 위대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조금 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고자 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결하시고 온전하신 구주를 생각할 때, 그분에 비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흠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지만, 그러한 높은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에게 성찬 의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희생 제물을 바치던 구약전서 시대의 관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의식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레위기 5:5 참조) 이제 더 이상 동물을 희생으로 바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제3니파이 9:20)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취하십시오.(교리와 성약 59:12; 모로나이사 6:2 참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찬 의식이 행해지는 동안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일뿐만 아니라 잘한 일에도 생각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여러분 덕분에 기뻐하신다고 느꼈던 순간들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이 행해지는 동안 여러분의 발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느끼시리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저는 여전히 완전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을 영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구주가 계시기에 제가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항상이란 오랜 시간이며, 집중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가지를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지워진 삶의 문제들로 여러분이 얼마나 큰 무게를 느끼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할 수 있으려면,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주어질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아십니다.(교리와 성약 20:77; 강조체 추가)

그러므로 그분은 매주 성찬을 취하고자 돌아오는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분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

주

1. Spencer W. Kimball, “Circles of Exaltation” (address to Church Educational System religious educators, June 28, 1968), 5.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생 활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매주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얻는다. 그 고요한 순간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구주께 더 집중할 수 있을지 가정 복음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더 발전시킬 부분을 성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가? 매주 자신이 발전상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주께서 ...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한다.
(모로나아서 10:3)

청소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물 문경에는 기억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니파이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조상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형제들에게 권고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리고 모로나이는 물문경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기억하라고 가르쳤다.

구주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성약을 맺었다. 아이어링 회장은 성찬을 취하는 동안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도록 권고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구주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봉사하셨고 사랑을 보이셨는지에 관한 경전을 읽어 본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구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2. **내가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을 기억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주를 돌아본다.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골라서 어떻게 그 부분을 개선할지 기록한다. 이 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둔다.

3.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자신이 잘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느낌을 기록한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구주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바로 그런 이유로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소망을 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바라게 된다. 아이어링 회장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가르친다.

어린이

예수님을 기억해요

우리는 경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요. 그 말은 그분을 아주 많이 생각하며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투명한 종이를 대고 여기 있는 예수님 그림을 따라서 그리고, 색칠해서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
(제3니파이 18:7)





신앙, 가족, 구제

방문 교육 대상 자매와 그 자매의 가족을 알아 간다

방문 교육은 자매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강화되도록 돕기 위해
진심으로 그들을 알아 가고 사랑하는
일이다.



리타 잭슨은 방문 교사와 만나서
복음에 관한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그녀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방문
교사가 오면 단어 게임도 함께
한다. 단어 게임을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리타가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문
교사는 리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기에, 둘은 매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 자매들은
방문 교육을 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도울 수도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는 1842년에 새로
조직된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서로에게 가져야 할 감정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참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자신을 … 주님의 대표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진실된
마음과 복음에 기초하여 회원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 나가는 전통을
세워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를 바랍니다.”²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34)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도 처음에는
“거류민”일지 모르지만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알아 가는 동안
우리의 소망이 자라서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 마음이 함께 맺어질”
것이다.(모사이야서 18:8, 21)

주

1. 루시 맥 스미스,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25쪽.
2. 제프리 알 홀런드, “교회의 대표자”,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62쪽.



생각해 볼 점

방문하는 자매들의
가족이 앞으로 맞이할
행사 가운데 여러분이
꼭 알아 두거나
기억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살핌

방문 교육 기사 페이지는 매달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서로를 더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원리를 주로 다룰 것이다.
기도하고 영감을 구한다면, 각 자매에게 필요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필요 사항을
도울지 알게 될 것이다.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예전에 실렸거나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교리 살펴보기

신권의 맹세와 성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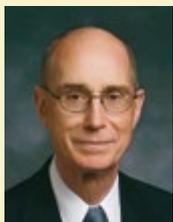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아론 신권과 관계된 책임들과 더불어 멜기세덱 신권에서 그가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열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이 구원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소유자와 함께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신이 신권 소유자의 마음에 함께 거할 것이며 천사들이 그를 받들 것입니다. 그의 육신도 강건해지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베드로후서 1:4]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5~66쪽.



신앙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더욱 강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의 적으로부터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할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에 앞서가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다른 사람을 받쳐 주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받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성찬식에서 약속받듯이 그분의 영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 왕국에 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부터 그러했듯이, 반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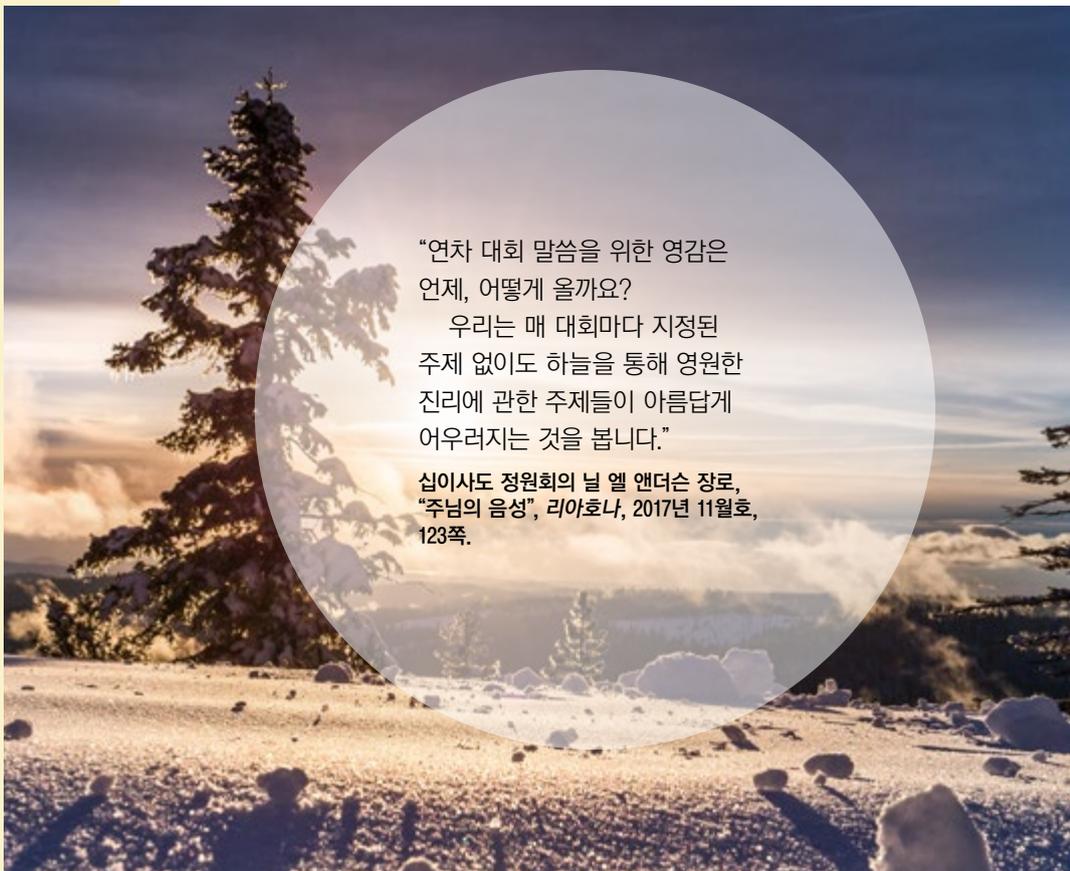


주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

“저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신의 성약과 제자됨의 중심에 봉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세상을 바꿀 야심찬 방법을 찾느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필요 사항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와드,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옆자리에 앉은 같은 반 친구가 우정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5~26쪽.



“연차 대회 말씀을 위한 영감은 언제, 어떻게 올까요?

우리는 매 대회마다 지정된 주제 없이도 하늘을 통해 영원한 진리에 관한 주제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 “주님의 음성”,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23쪽.



완전함: 은혜의 은사

“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이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신성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두들겨 패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 될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려는 마음과 의롭고자 하는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서, 궤양이나 거식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모로나이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 ...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 10:32; 강조체 추가] 진정한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서 은사로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슬픔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비판으로부터도 구원해 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그러므로 너희도 중국에는 온전하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40,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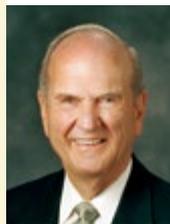


여러분을 위한 해답

어떻게 구주를 우리의 삶 속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성찬을 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걸맞지 않은 것은 모두 삶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속성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과거의 죄에서 멀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경전 안내서, 회개]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39쪽.



2017년 4월 물몬경에 관한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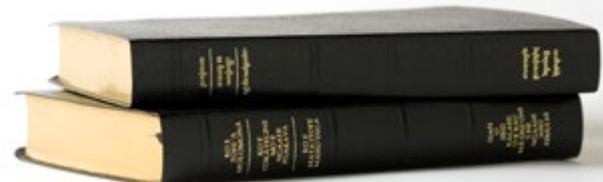
“[물몬경을 연구하고 숙고하라는] 몬슨 회장님의 권유 이후로 저는 그분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저는 물몬경이란 무엇인가, 물몬경이 확인해 주는 것, 물몬경이 부인하는 것, 물몬경이 성취한 것, 물몬경이 명확히 한 것, 물몬경이 밝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물몬경을 보는 일은 통찰과 영감을 얻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 말씀 말미에 작성된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질문들을 숙고해 보십시오.] 첫째, 물몬경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둘째, 여러분이 모르고 지낼 것은 무엇이겠는가? 셋째, 여러분이 가지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물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61, 63쪽.



해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승진하거나 강등되는 것이 아니다. 그저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최 근에 내 친구 하나가 와드 감독에서 해임되었다. 며칠 뒤, 그 친구는 나도 감독으로 봉사한 적이 있음을 알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원래 이런 기분이 드나?” 친구가 물었다.

“어떤 기분인데 그래?”

“뚝 떨어져 나온 듯한 기분이야. 아주 많은 사람의 삶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활이 끝나 버렸어. 다시 그렇게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이 말을 듣자, 내가 해임되던 때가 떠올랐다. 나도 비슷한 기분이었다. 사람들이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일에 긴밀히 관여하던 것이 그리웠다.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따르도록 그들을 격려하던 것이 그리웠다. 감독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훌륭한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축복이 끝나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나는 봉사하는 축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봉사의 축복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억해야 하지 않는가?(고리과 성약 20:77, 79 참조) 사람들이 구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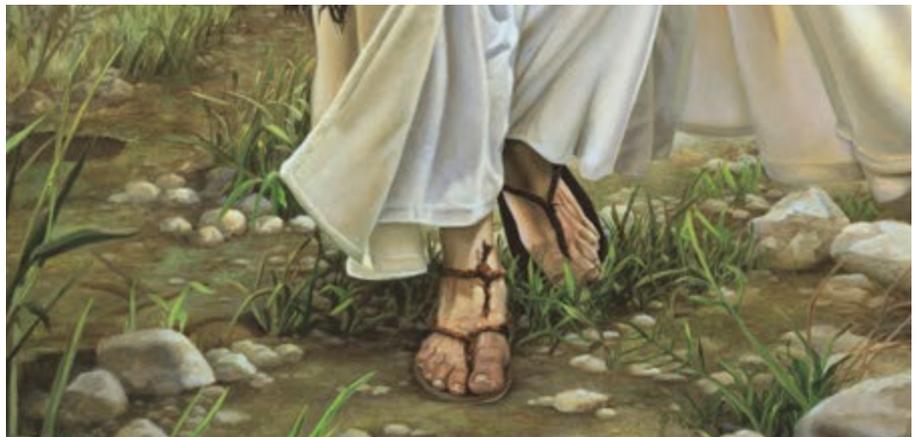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항상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특히 배우자와 가족이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따르도록 항상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 “우리는 부름에서 해임될 때 ‘강등된다’고 생각하거나, 부름을 받을 때 ‘승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서 ‘높고 낮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진과 후진’이 있을 뿐이며 그 차이는 우리가 해임과 부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9년 동안 훌륭하게 봉사한 젊은 스테이크 회장의 해임을 감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해임과 새로 받은 부름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와드에서 유아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이 교회에서만 그 부름들을 똑같이 영예롭게 여깁니다!”

나는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부름에서 봉사했든지 간에 그 부름에서 해임된다고 해서 봉사가 끝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봉사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머지않아 새로운 부름을 받게 되며, 다시금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49쪽.



주님을 찾아서 그들의 일부, 리드 레민 스완들, 복사 글지.



태드 알 콜리스터
본부 주일학교 회장

제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어느 날, 제 보조 하나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첫 번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금도 자넨 잘 하고 있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사코 묻길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제 생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경험을 다른 선교사들과 나누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장로와 자매들도 접견을 하러 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선교사의 이 단순한 질문은 선교부 전체에 더 나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지도자들에게 “제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단순하고 진지하게 질문한다면, 그들도 건설적인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고리와 성약 112:10)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림

영국의 소설가 제이 비 프리스틀리는 재능이 있던 또래들은 아무도 뛰어난 성공을 거두지 못한 터에 어떻게 그토록 유명한 작가가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프리스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저는 재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 그 친구들은 ... [글을 쓴다는 매혹적인 일을 재미 삼아 했던 데 반해,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매달렸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현재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역량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구주처럼 가르치고자 온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가?” 우리는 과연 교만한 마음을 기꺼이 모두 버리고, 가르침을 기다리며,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겸손이 열쇠입니다

이 교회에는 훌륭한 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랜 경험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학위가 있으며 반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의 자질을 규정하는 것은 아마도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겸손은 영을 불러들이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소망을 키워 주는 자질입니다.

이따금 저는 자기가 속한 와드나 지부의 몇몇 교사들이 자신은 숙련되고 뛰어난 교사이므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거나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탓에 실망스러워하는 주일학교 회장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저는 아직 어떤 면에서도 향상할 여지가 없는 교사는 본 적이 없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숙련된 교사일지라도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신성한 통찰력과 느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교사 평의회 모임에 수십 차례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통찰력을 얻거나, 교수법을 더욱 가다듬고 완성해야겠다는 소망과 성품을

향상하겠다는 소망을 품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교수법을 향상할 필요성

간혹 어떤 이들은 교수법을 단순히 기계적 또는 세속적인 도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향상하면, 영은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도 개별 학습자의 필요 사항에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자를 때 주머니칼을 쓰는 것과 전기톱을 쓰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생산적일까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사람의 힘과 특성은 같지만, 더 효과적인 도구를 손에 든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교수법은 영의 손에 들리면 신성한 도구가 됩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의 수준과 관계없이, 훈련과 실습, 역할극, 학습, 관찰은 영을 불러들이는 교수법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주님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법 중에는 교사 평의회 모임에서 계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틀을 잡아 주시고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구주처럼 가르칠 수 없으며, 그런 일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 밖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저 어부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마태는 자신이 멸시받는 세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강력한 지도자요 복음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틀과 형태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여기는 다비드상을 조각하던 당시 미켈란젤로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과업을 맡기 전에 아고스티노 디 두치오와 안토니오 로셀리노라는 두 조각가도 조각상을



제작하도록 의뢰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똑같은 문제와 맞닥뜨렸습니다. 이 907kg짜리 대리석 기둥은 높이와 너비는 적당했지만 심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디 두치오와 로셀리노는 이 기둥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기둥에 흠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² 마침내 두 사람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미켈란젤로도 똑같은 결함을 보았지만, 그는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날 구경꾼들이 첫눈에 경외심을 느끼는, 살아 숨 쉬듯 장엄한 다비드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충만함이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 선포되게”(교리와 성약 1:23)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과 약점도 보시지만, 그 이상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그런 연약한 것들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습니다.(이더서 12:26~27 참조) 그분은 우리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치기 위해 교수법과 성품을 가다듬어 완벽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칠 수 있는 방법

다음은 좀 더 구주처럼 가르치기 위해 우리가 모두 노력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 영이 우리의 가르침에 생명과 호흡, 실체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알고 **영으로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43:15 참조)
- 삶을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힘은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가 가르치는 교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리에 초점을 맞춘다.**(엘마서 31:5

참조)

- 이상적인 교사란 이상적인 학습자임을 알고 **열성적인 학습자가 된다.**(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 가르치는 부름을 받을 때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고 **계시를 구한다.**(교리와 성약 42:61 참조)
- 각 반원의 이름을 익히고, 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반원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며 **사랑을 보인다.**(모로나이서 7:47~48 참조)

개인적인 평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린도후서 13:5) 교사들을 위해 이 권고를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너희의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1년의 시작은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본 기사에 수록된 개인 평가 설문에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가 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과,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기술을 습득하고 계발할 방법을 알도록 영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

주

1. J. B. Priestley, *Rain Upon Godshill*(1939), 176.
2. “Michelangelo’s David”, accademia.org/explore-museum/artworks/michelangelos-david 참조.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로 발전하기: 개인 평가

아래에 제시된 효과적인 가르침의 원리들을 생각해 본다. 주어진 공백을 사용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서 해야 할 일로 느끼는 내용을 적어 본다.

1. 배우고 참여하겠다는 겸손한 소망으로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한다.(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2. 학습자이자 교사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영의 느낌을 정기적으로 기록한다.(교리와 성약 76:28 참조)	
3. 적어도 일주일 전에 공과 준비를 시작한다.(교리와 성약 118:119 참조)	
4. 교사의 강의와 반 토론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교리와 성약 88:122 참조)	
5. 하나의 손에 들린 도구로 쓰이기 위해 간절히 영을 구한다.(교리와 성약 42:14 참조)	
6. 더 강력한 계시를 받기 위해, 공과나 외부 자료를 읽기 전에 시간을 내어 경전 블록을 숙고한다.(교리와 성약 42:61 참조)	
7. 반원들, 특히 청소년이 더 나은 선교사, 지도자, 교사 및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교사가 되게끔 돕는다.(교리와 성약 88:77 참조)	
8. 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누가복음 22:32 참조)	
9.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반원에게 관심을 보인다.(누가복음 15:1~7 참조)	
10.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교사가 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더 깊이 있게 평가해 보려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7쪽에 수록된 개인 평가를 참조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혀 주셨기에

레이첼 에이치 리섬

새롭게 연재되는 본 기사는 *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조명하게 된다. 발췌한 내용은 churchhistorianspress.org/at-the-pulpit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복음 덕분이며,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복음을 가져다주시고 복음을 세우셨으며,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음을 압니다. ...

제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에 내려 주신 축복들과, 복음이 회복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분의 종들에게 주어졌으며, 진리와 생명,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마련되어 있음을 세상에 나아가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의 특권에 결코 다 감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때때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지워진 책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이끄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분들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맡게 될 것이며 시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도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 잊고 지냅니다. 우리는 우리 몫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대에 이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인 물문경과 친숙합니까? 우리는 그 책에서 가르치는 위대한 진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몸담은 이 사업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경전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충분히 알지 못하며,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¹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얼마나 많이 요구받을지 알고 있습니다.[누가복음 12:48; 교리와 성약 82:3 참조]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신명기 8:3; 마태복음 4:4; 교리와 성약 84:44 참조] 그분께서 가까이 품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사랑하실 만한



리섬 자매에 대하여

레이첼 한나

리섬(1884~1979)은 1908년 4월 5일, 연차 대회가 열리던 기간에

야외에서 열린 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으며, 교회의 공식 대회 보고서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여성이 되었다.

리섬은 교회의 전도 선교사로 봉사한 1세대 미혼 자매 선교사였다. 그녀는 1906년 9월, 22세에 콜로라도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르받았다.

1908년에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온 리섬 자매는 템플스퀘어 안내소의 안내인으로 자원하여 봉사했다. 이 안내소는 템플스퀘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회의 인쇄물을 배부할 목적으로 1902년에 문을 열었다.

이 무렵 연차 대회는 템플스퀘어의 태버내클에서 열렸다. 태버내클이 만석이 되면, 참석자들은 인근에 있는 어셈블리홀에서 열리는 집회로 인도되었다. 어셈블리홀도 만석이 되면 사람들은 안내소 건물 근처의 잔디밭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연차 대회의 별도 집회가 열렸다.

본 메시지는 1908년 4월 5일, 리섬 자매가 연차 대회의 별도 집회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구두점 및 대문자는 수정하였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압니다. 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도 아니고, 제 어머니가 항상 제게 가르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밝혀 주셨기에 저는 복음이 참됨을

압니다. 그분의 영이 제 마음에 증거해 주었고[로마서 8:16 참조],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Excerpted from Jennifer Reeder and Katie Holbrook, eds., At the Pulpit: 185 Years of Discourses by Latter-day Saint Women (2017), 133-135.

주

1. 리셋 자매가 자신의 선교부 회장 앞으로 매달 보낸 편지에는 그녀의 근면성이 드러나 있다. 리셋 자매가 쓴 1907년 2월 25일 자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으며 제가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Colorado Denver South Mission General Minutes, 166)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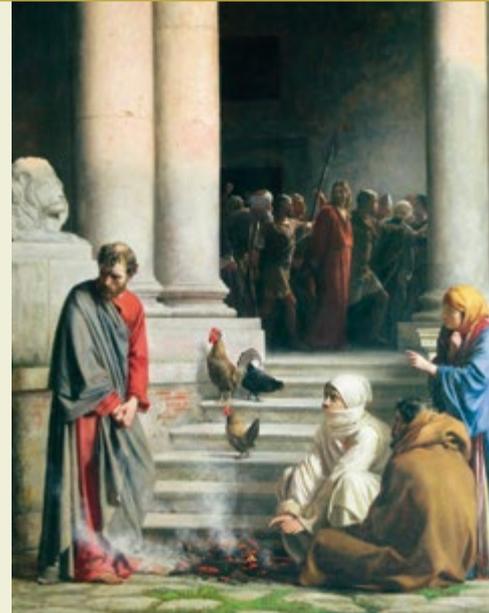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

테리 비 볼

브리검 영 대학교 종교 교육 교수

베드로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받는 사도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가 매우 진실하며,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와 공감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물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었던 그의 용기에 우리는 찬사를 보낸다.(마태복음 4:18~20) 그가 비유의 의미와 메시지를 두고 느꼈을 혼란을 이해하며(마태복음 15:15~16), 그 밤 갈릴리 바다의 격랑 속에 발이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소리쳤던 그의 필사적인 마음에 공감한다. 우리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느꼈을 경외심을 이해한다.(마태복음 17:1~13 참조)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정한 후 느꼈을 수치심에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리고(마태복음 26:69~75 참조),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그와 함께 슬퍼하며(마태복음 28:36~46 참조), 텅 빈 무덤 앞에 선 그와 더불어 기뻐하고 놀라워한다.(요한복음 20:1~10 참조)

복음서의 저자들은 우리가 베드로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기사에는 다른 초대 십이사도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대화한 일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보존되어 있는 듯 하다.¹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변인이자 선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관계를 그렇게 자주, 또 상세하게 다뤘던 이유는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특별한 증언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베드로가 세심하게 준비된 끝에 얻었을 그 증거를 말이다.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이해함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특별한 증언을 더 잘 준비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베드로의 준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적, 실제적, 계시적 경험을 통해 주님이 곧 메시아라는 사도로서의 증언과 간증을 얻게 되었던 것 같다. 즉,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 그도 머리와 손, 가슴을 통해 간증을 얻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평범한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았다. 그분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마태복음 11:4~5 참조; 또한 요한복음 2:11; 10:25; 20:30~31 참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논리적인 확신은 그가 주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얻은 배움을 통해 강화되었다. 그는 구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거두었다.(누가복음 5:1~9; 요한복음 21:5~7 참조)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물 위를 걸었다.(마태복음 14:22~33 참조) 또한,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한 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자, 그의 손 안에서 떡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요한복음 6:1~14 참조)

이렇게 베드로가 머리와 손으로 얻은 증거는 그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 곧 그의 가슴에 계시된 증거에 상당한 힘을 더해 주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으레 하던 말로 이에 답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바꾸어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복음 16:13~15 참조)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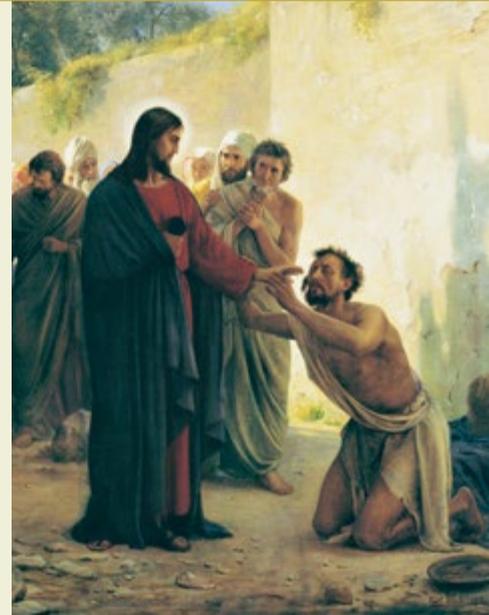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6~17)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소 개인적인 경험이 몇 차례 포함되었다.² 주로 그가 질문을 가지고 구주께 다가가거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그에게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그에게 개인적인 권고와 지침이 주어졌다.³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를 통틀어 아마 가장 질책을 많이 받은 제자였을 것이다.⁴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를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계속 구주를 따르며 하루하루 그분에 대한 증거를 더하고 그분에 대한 배움을 쌓아 나갔다.⁵

이 갈릴리 어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목격함으로써 그분의 특별한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절정에 이르게 된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자 달려갔다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무덤을 나셨다.(누가복음 24:1~12; 또한 요한복음 20:1~9 참조)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누가는 바로 그 날 어느 시간엔가 부활하신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고 기록했다.(누가복음 24:34; 고린도전서 15:3~7 참조) 그날 저녁,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과 다른 몇몇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평범한 사람
이상의 존재임을
알았다. 예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타나셔서 당신 몸에 난 상처를 먼저 보게 하셨다. 그런 뒤 그분은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경전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24:36~48 참조; 또한 마가복음 16:14; 요한복음 20:19~23 참조) 나중에 열한 명의 제자들은 구주께서 명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확인하셨다.(마태복음 28:7, 10, 16~20 참조)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머리와 손, 가슴으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며, 그분을 손으로 먼저 보았고, 영의 확증을 다시 가슴으로 분명히 느꼈던 것이다.

베드로의 사명

베드로가 메시아의 속죄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기까지 시간과 가르침, 경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증인이 될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는 데에도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가르치셨을 때, 그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한 것 같다. 십자가에 못 박혀 생긴 상처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서 두 번이나 먼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말했다.(요한복음 21:3)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므로 베드로는 본래의 생활과 생업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의 형제들도 그를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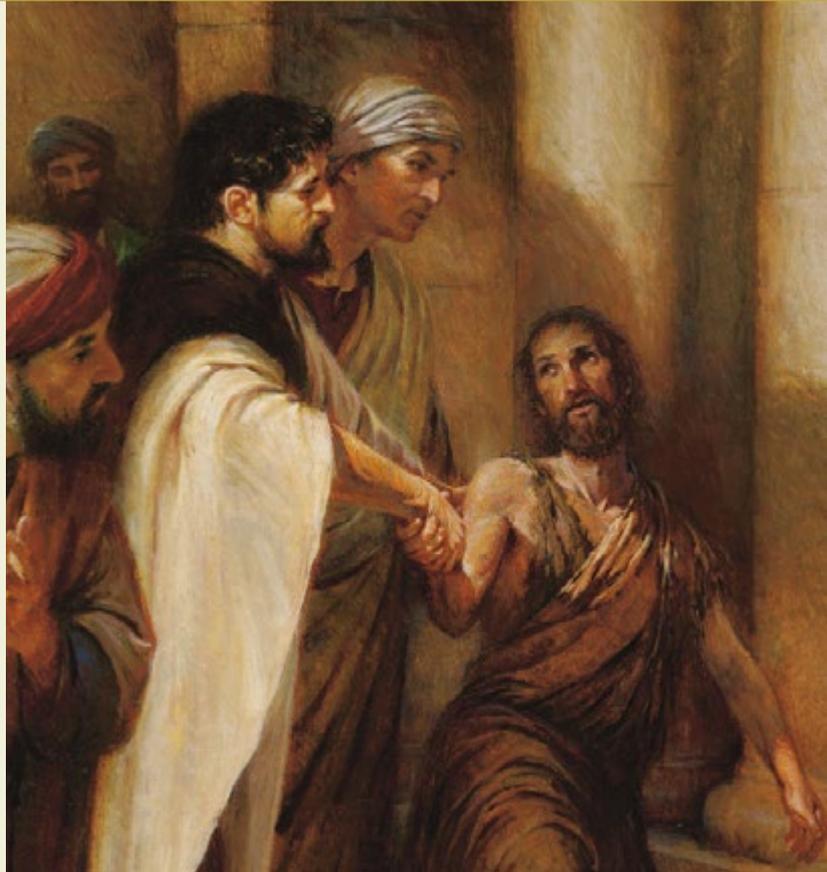
밤새 힘겹게 일을 하였으나 그들은 잡은 것이 없었다. 해변에 이르렀을 때는 몹시 지치고 낙담했을 것이다. 그들은 누군가 그곳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비슷한 권고를 듣고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지난 일이 떠올랐던지, 그들은 이번에는 아무 저항도 질문도 없이 이 말씀에 따랐다.(누가복음 5:1~9; 요한복음 21:3~6 참조) 그들이 다시 한 번 그물을 끌어 올리자 엄청난 물고기가 쏟아져 나왔고, 이를 본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쳤다. “주님이시라.”(요한복음 21:7) 배가 해변에 닿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께 가고자 “바다로 뛰어 내”렸다.(요한복음 21:7) 나머지 일행이 도착하여 보니, 그들이 먹도록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요한복음 21:9 참조)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쫓고자 선택한 물고기를 가리키시며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한복음 21:15) 분명 베드로는 이 질문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당연히 베드로는 물고기나 어업보다 구주를 더 사랑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그의 마음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베드로는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맹세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또 한 번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내 양을 치라.”(요한복음 21:16) 예수께서 세 번이나 제자인 자신에게 사랑을 확인해 보이게 하시자, 베드로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에서 비애와 열정을 느낀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요한복음 21:17)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⁶ 베드로가 진정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는 어부를 그만두고 목자가 되어 주님의 양 떼를 돌보았을 것이다.⁷ 그때부터 베드로가 행한 일과 성역에서는 마침내 그가 그리스도의 특별한 종이고 증인으로서 자신이 위임받은 일과 사명을 이해했음이 드러난다.

베드로의 증언

그날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한 후,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위임받은 일을 이루고자 놀라운 신앙과 용기를 발휘하여 단호하게 세상으로 나아갔다. 베드로는 선임 사도로서 앞장서서 교회를 감리하는 부름을 행했다. 그는 이 직분에 따르는 여러 의무로 여념이 없는 중에도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오순절에 성신이 풍성히 임할 때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사도행전 2:1~41 참조), 치유의 기적을 행한 후 성전 안 솔로몬의 행각에서(사도행전 3:6~7, 19~26 참조), 체포되어 유대교 지도자 앞으로 끌려가서도(사도행전 4:1~31 참조; 또한 사도행전 5:18~20 참조), 성도들을 가르치면서도(사도행전 15:6~11 참조),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도 항상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일을 놀라운 신앙으로 이루었다. 그는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다.

증거했다.

베드로는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에 관해 개인적으로 얻은 증거를 상고하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내비쳤다.(베드로전서 5:1)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 지시하신 것 같이 [그도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결연히 받아들였다.(베드로후서 1:14)

그는 이 엄숙한 말씀을 하며, 여러 해 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 후 이렇게 선포하셨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한복음 21:18) 요한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한복음

21:19) 노년에 접어든 베드로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평생 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주님을 따라 저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분명 화평과 기쁨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신약전서에 베드로의 행적과 기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기록은 보물과도 같으며, 이로써 우리는 이 충실한 어부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이 기록을 통해서나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그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를 준비시키셨음을 알 수 있다. 이 기록들을 읽으며, 베드로와 더불어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이해가 자라남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성장함으로써, 신앙을 얻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소망과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신 바를 명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구주께 위임받은 일을 이루고자 용기와 헌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베드로가 얻은 증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을 되풀이하기를 열망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9) ■

주

1. 신약전서에는 사도 바울의 증거와 경험, 가르침이 베드로의 그것들보다 꼼꼼하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은 초대 십이사도가 아니었으며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2. 마태복음 17:1~13; 26:36~46, 58; 마가복음 13:1~37; 누가복음 8:49~56; 9:28~36 참조.
3. 마태복음 17:24~27; 18:2~35; 19:27~20:28; 누가복음 12:31~49; 요한복음 13:6~19 참조.
4. 마태복음 14:31; 15:15~16; 26:33~34, 40; 마가복음

8:32~33; 요한복음 18:10~11 참조.

5.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자주 책망받은 것에 관하여 스펜서 더블유 킴블(1895~1985)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끔 그를 꾸짖으셨으며,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런 꾸지람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할 훌륭한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잠언 15:31~32) ‘생명의 경계’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한 지도자이며 또한 현명한 추종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왕국에서 매우 높은 위치 또는 책임을 맡도록 그를 훈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예수님—완전한 지도자, 성도의 빛, 1983년 8월호, 8쪽)
6.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세 차례 확실히 하심으로써, 그가 시험을 받던 그 절박한 밤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1916), 692쪽; 제프리 알 홀런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83~85쪽을 참고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과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관해 논한 글을 살펴보면, 고든 비 헝클리,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97~100쪽; 닐 에이 맥스웰, “실족된 형제”,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58~62쪽을 참고한다. 한편 본문에 쓰인 그리스어의 미묘한 차이에 주목하여, 베드로는 세 차례 질문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받은 부름에 속한 다른 측면들과 임무들에 대해 각각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lovest thou me?]”라고 물으실 때, 처음 두 번은 *agapao*라는 말로써 사랑[love]을 지칭하셨다. *agapao*는 사회적 또는 도덕적인 사랑을 뜻하며, 종종 하나님의 사랑 또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른 구절에서는 “자애[*charity*]”로 번역되었다.(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1~4; 베드로후서 1:7; 요한계시록 2:19) 주님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는, 사랑을 지칭하는 말로 *phileo*를 쓰셨다. *Phileo*는 우정, 애정, 또는 형제애를 뜻하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이 세 차례의 질문에 모두 *phileo*라는 말로 답하며 자신의 사랑을 단호히 나타냈다. 베드로가 맨 처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자,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스어로 *boskolfeed*, 먹이라라고 명하셨다. *Bosko*는 *arnion*, 즉 어린 양에게 풀을 먹이거나 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이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양”은 다 자란 양을 뜻하는 그리스어 *probaton*을, “치라”는 보살피거나 인도함을 뜻하는 *poimaino*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 자란 양[*probaton*]을 먹이라[*bosko*]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세 번 질문하심으로써 제자인 베드로에게 당신에 대한 자애와 형제애가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그런 후 계명을 주시므로써 베드로가 어린 양과 다 자란 양을 모두 먹고 또 돌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7. 이 사건과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에 관해 논한 글을 살펴보면, 로버트 디 헤일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80~83쪽을 참고한다.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따랐으며 주님을 따라 저세상으로 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고 화평과 기쁨을 느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종교의 자유: 평화의 주춧돌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믿음을 고수하고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5년 4월 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종파 간 회의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오늘 저녁, 이 종파 간 회합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슬람교, 시크교, 천주교, 재림교, 유대교, 복음주의 기독교, 몰몬교, 토착 종교 등 여러 종교에 몸담으신 분들은 물론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모여 정부 및 기업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또 기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실로 강력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이곳 브라질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브라질은 종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다양성을 수용했기에 번영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입니다. 최근에 브라질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¹ 이렇게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브라질에 축하를 보냅니다. 브라질은 이제 이 자유가 신장하도록 범세계적인 운동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나라]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 16)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세계는 오래도록 밝은 빛을 내기 위해 브라질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비전을 기념합니다.

배경 및 기본 원칙

종교의 자유는 여러 철학이 상충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주춧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모든 장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다양한 믿음이 공존하게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나온 현명한 결론처럼, 종교의 자유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며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수 세기 동안 힘겹게 이룩해 온 민주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다원주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²

견고한 자유란 정치 철학자들이 언급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든 말입니다. 견고한 자유란 오히려 관대하고, 사려 깊으며, 다양한 믿음을 수용하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종교나 믿음에 따라 생활할 자유, 곧 훨씬 더 풍요로운 “적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통해 가장 핵심이 되는 신념을 확립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인권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인쇄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출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는 팔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며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이러한 진전을 목격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불과 세 살이던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³

제가 21세 때는 유엔 선언을 구속력 있는 선언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믿음을 갖거나 받아들일 자유가 있으며,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가르침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⁴ 이 조약은 10년 후인 1976년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현재, 사실상 세계의 모든 선진국을 포함한 169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⁵ 1969년에 채택되어 1978년부터 발효된 미주 인권협약(코스타리카 산호세 협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⁶

강력한 명분은 진전의 원동력이 되며, 더 많은 일을 완수할 동기로 작용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경제 및 공중 보건, 그리고 시민 사회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⁷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결혼 관계가 더 견실하며, 약물 남용 및 범죄에 덜 연루되고, 교육 수준이 더 높으며, 자선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하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또한, 근무 태도가 더 훌륭하며, 수명이 더 길고, 건강 상태가 더 좋으며, 수입이 더 높고, 더 높은 수준의 안녕과 행복을 누립니다.⁸ 분명,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실천은 사회를 강화합니다.

경계와 협력의 필요성

불행히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따르는 보호는 대체로 미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며, 공격도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강한 압력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했던 국가에서조차 말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많은 국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나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이곳 브라질에서 즐기는 기념 행사는 상상도 못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약 55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심하거나 아주 심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과 6년 전의 68%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⁹

거의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 단체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기를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치적 다수를 비롯한 집권자들의 철학이나 목표와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종교는 문화에 반한다는 이유로 흔히 큰 인기를



언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의 자유는 원칙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지를 얻더라도 실천 면에서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교회가 성직자 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지, 개인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종교적 의상이나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 또는 낙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개인이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아야 되는지, 도덕적 기준이나 믿음을 이유로 직원 또는 학생을 고용/입학에서 배제하거나 퇴학/퇴직시킬 수 있는지, 학생 종교 단체가 믿음이 다른 학생을 받아들일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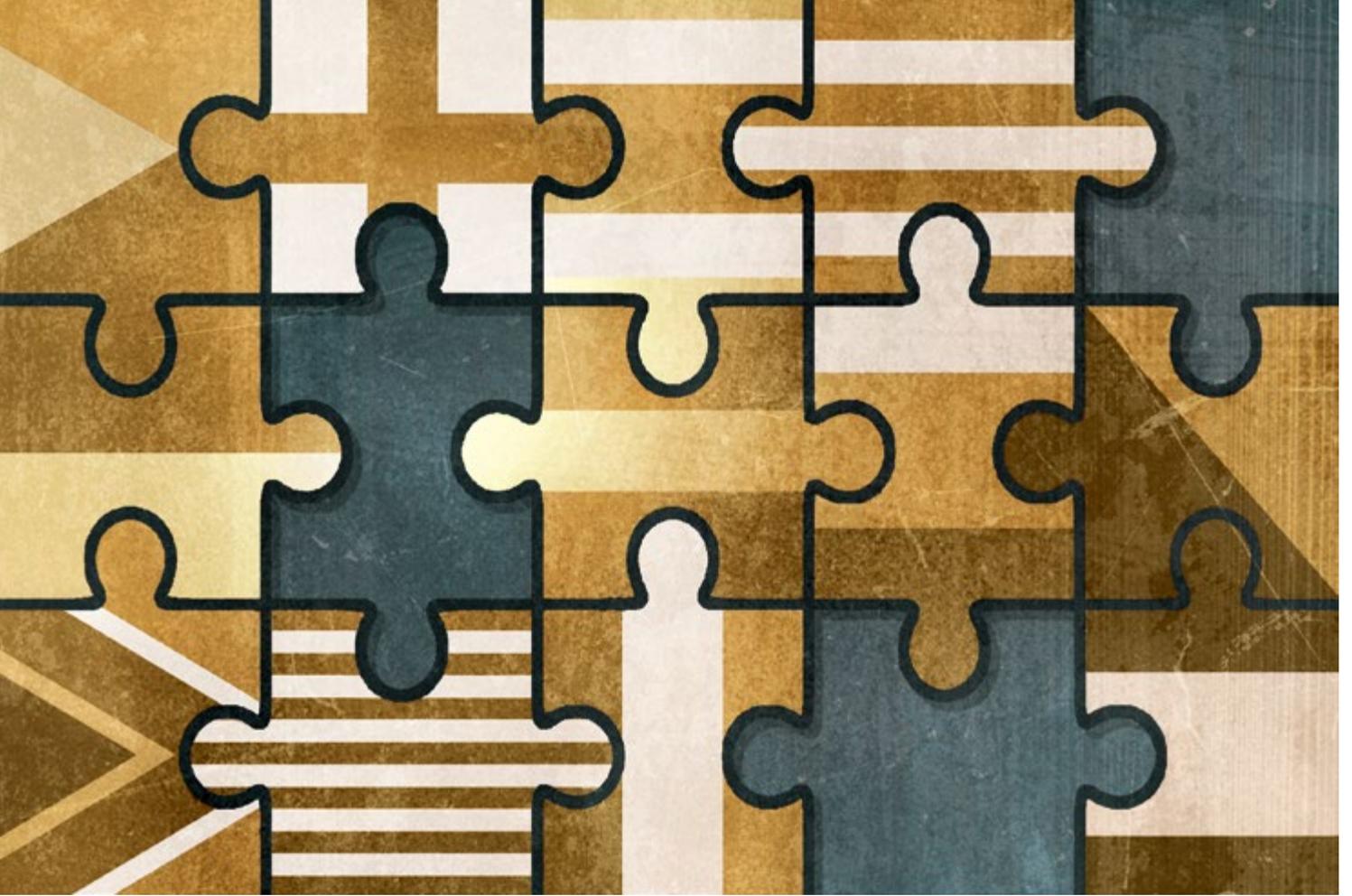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브라질 역시 기업의 일요일 휴업, 종교적 의상 착용,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의 전통을 보호하는 등의 문제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종교의 자유에 이로운 쪽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일은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브라질에 중요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종교인과 종교 단체가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며 비난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때, 브라질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밝고 희망에 찬 본보기를 전 세계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국내에서 구축한 자유를 굳게 지켜 가며, 세계 무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장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보호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이런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노력이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낙관하지만, 누구도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1948년, 유엔 총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21세 때, 유엔 선언을 구속력 있는 선언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169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이런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노력이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낙관하지만, 누구도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제 동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최근에 어느 토론회에서 한 다음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분이 확립하신 옳고 그름에 관한 원리를 전파하고 실천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중 하나님을 믿고, 옳고 그름의 실재를 믿는 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절대자께서 인간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확립하셨다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든, 모두 그것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¹⁰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성구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성구가 제시된 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제 선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고도 다르게 보이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던 1835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많은 제약이, 원칙은 지지하나 온전히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나라에 가해지는 우리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다.” 정부는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된다.]”(교리와 성약 134:2, 4)

개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나,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공식에서나 사석에서나, 예배와 의식, 실천과 가르침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믿음을 고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기를 기원합니다. ■

이 연설의 전문은 mormonnewsroom.org에서 볼 수 있다.

주

1. "Brazil Has Lowest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ong 25 Most Populous Countries," July 22, 2013, theweeklynumber.com/weekly-number-blog;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in the Most Populous Countries," Feb. 26, 2015, pewforum.org 참조.
2. *Kokkinakis v. Greece*, 3/1992/348/421 (May 25, 1993), para. 31; *Nolan and K. v. Russia*, 2512/04 (Feb. 12, 2009), para. 61; see also *Serif v. Greece*, 38178/97 (Dec. 14, 1999), para. 49;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9.
3.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8, Dec. 10, 1948, un.org/en/documents/udhr.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8, Dec. 16, 1966, 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참조; 또한 W. Cole Durham Jr., Matthew K. Richards, and Donlu D. Thayer, "The Status of and Threats to International Law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Allen D. Hertzke, ed., *The Future of Religious Freedom: Global Challenges* (2013), 31–66 참조.
6.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ct of San José, Costa Rica," Nov. 22, 1969 (Inter-American Specialize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as.org 참조; 또한 Juan G. Navarro Floria and Octavio Lo Prete, "Proselitismo y Libertad Religiosa: Una Visión desde América Latina," in *Anuario de Derecho Eclesiástico del Estado*, no. 27 (2011), 59–96 참조.
7. Brian J. Grim, Greg Clark, and Robert Edward Snyder, "Is Religious Freedom Good for Busines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Research on Religion*, vol. 10 (2014), 4–6; Paul . Marshall, "The Range of Religious Freedom," in Paul A. Marshall, ed., *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2008), 1–11 참조.
8. Patrick F. Fagan, "Why Religion Matters Even More: The Impact of Religious Practice on Social Stability," *Backgrounder*, no. 1992 (Dec. 18, 2006), 1–19; 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2010), 443–92 참조.
9. "Latest Trends in Religious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Feb. 26, 2015, pewforum.org 참조.
10. Dallin H. Oaks, "Preserving Religious Freedom" (lecture at Chapman University School of Law, Feb. 4, 2011), mormonnewsroom.org.

가정의 밤 아이디어

우리나라의 국민이 처음으로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된 과정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가족과 토론한다. 우리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 사건으로는 무엇이 있었는가? 법률의 제정, 저항 운동, 전쟁도 이러한 사건에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 주제를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만들어도 좋다. 또한, 다음 질문에 관해 토론해 본다. 종교의 자유는 어떻게 우리 삶에서 축복이 되는가?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신과 타인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장려할 수 있는가?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18 61년, 브리검 영(1801~1877) 회장은 교회의 역사가들에게 역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쓰되 10분의 1 정도만 쓰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권고를 따른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라는 책 네 권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리즈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1장은 이번 호에 실렸으며, 이어지는 장들은 다음 몇 달 동안 본 잡지에 게재됩니다. 첫 번째 책은 올해 말에 나오며, 잇따라 다음 책들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기록과 역사를 계속하여 기록”하라는 (교리와 성약 47:3) 주님의 계명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교회 역사와 달리, 이 책에는 이야기로 쓴 역사가 담겨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게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역사 소설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에 근거한 실화입니다. 모든 세부 내용과 대화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각 장 끝의 주석에는 기록과 아울러 추가 자료의 출처가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읽어 보고, 관련 주제를 더 잘 이해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보려면 책 뒤쪽과 saints.lds.org/kor의 온라인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회복이라는 풍성한 용단

이 책은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고자 하는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주님의 지시를(에베소서

성도들 제1권의 표지에 실릴 나무의 그림.



4:11~13) 따르고자 하는 주님 교회의 이야기가 네 권에 걸쳐 실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과거에 출간한 두 종류의 역사서와는 구성 방식과 문체와 주 독자층이 다릅니다. 첫 번째 역사서는 1830년대에 조셉 스미스가 기록을 시작하여 1842년부터 출판되었습니다.² 두 번째 역사서는 교회 역사가 보조인 비 에이치 로버츠에 의해 1930년에 출간되었습니다.³ 그 후로 회복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주님께서 “교회의 유익[과] 일어나는 세대들[을 위해]”(교리와 성약 69:8) 계속하여 역사를 기록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은 바야흐로 더 많은 후기 성도의 이야기가 교회의 역사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성도들에서는 교회가 막 회복되었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살다 간 평범한 남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교회사에서 잘 알려졌던 인물 및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세부 내용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각 이야기를 통해, 교회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여러분 앞에 왔던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려움을 겪고 성공을 거두었으며, 시온을 세우고자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로 짜이면 회복이라는 풍성한 융단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과거

물문경의 기록을 맡은 사람들은 큰 판과 작은 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판은 정치 및 군사와 관련된 역사를 기록하는 데 쓰였고, 작은 판은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함” 등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을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니파이전서 6:3; 야곱서 1:2, 4) 작은 판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우리 백성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야곱서 1:4) 성도들은 우리의 성스러운 과거에 초점을 둔 “작은 판”의 역사가 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는 주님께서 후기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다룰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의 작은 표본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완전했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된 과거의 사람들만 다룬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자 소망하는 현재의 불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구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이 어떻게 약한 백성을 강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척하고자 어떻게 힘을 모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

1. Brigham Young, Wilford Woodruff, Journal, Oct. 20, 1861,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ed. B. H. Roberts (1902–12 [vols. 1–6], 1932 [vol. 7]) 참조.
3.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Century I*, 6 vols. (1930) 참조.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출간되는가?

성도들 전 4권은 14개 언어로 번역되어 도서 형태로 출판될 예정이며, saints.lds.org/kor와 복음 자료실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선정된 몇 개 언어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각 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가?

- 제1권(2018년 말 출간 예정)은 조셉 스미스의 어린 시절부터 1846년 성도들이 나부 성전에서 의식을 받는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 제2권은 성도들이 미국 서부에 집합하는 데 따랐던 어려움을

다루며, 1893년 솔트레이크 성전이 헌납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 제3권은 1955년 스위스 베른 성전이 헌납되기까지 교회가 범세계적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다룬다.
- 제4권은 전 세계 곳곳에 성전이 세워진, 현재와 가까운 과거를 다룬다.

선정된 주제에 관한 추가 심층 자료가 각 권의 참고 자료로서 온라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제1장

믿음으로 구하고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1장이다. 이 책은 14개 언어의 인쇄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은 제1권이 출간되는 올해 말까지 앞으로 발간될 리아호나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 장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 언어로 볼 수 있다.

18 15년, 인도네시아 섬바와 섬은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촉목이 무성했다. 농가들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탐보라 화산 아래 일군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이제 곧 다가올 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4월 5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탐보라 화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나 화산재와 불길을 토해 내기 시작했다.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을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화산 분화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4월 10일 저녁, 산 전체가 폭발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세 개의 불기둥이 한데 섞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산비탈을 따라 흐른 용암이 산자락 마을을 뒤덮었고, 마을에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옥들이 휩쓸려 갔다.¹

혼돈은 그날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이튿날까지도 이어졌다. 화산재가 수 마일 반경의 대지와 바다를 뒤덮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50센티미터 이상까지 쌓였다. 한낮에도 한밤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 해안선을 넘어와 드세게 몰아친 바닷물은 추수를 앞둔 마을을 삼켜 버렸다. 탐보라 화산은 몇 주에 걸쳐 끊임없이 재와 돌덩이, 불길을 뿜어 냈다.²

그 후 몇 달간, 화산 폭발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늘에는 사람의 넋을 잃게 하는 눈부신 석양이 드리웠다. 하지만 석양의 화려한 빛깔은 지구를 둘러싼 화산재의 치명적인 영향을 잠시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했고 있을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³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인도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온화한 기후의 축복을 받던 중국의 비옥한 강 유역에서는 한여름의 눈보라가 몰아쳤고, 폭우가 쏟아져 농지를 쓸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럽에서는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아로 사회적 공황이 일어났다.⁴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상 기후로 야기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는 성자들의 기도 소리와 노랫소리가 메아리쳤다. 중국의 시인들은 고통과 상실의 화두를 놓고 씨름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민들은 성경에 예언된 참혹한 재앙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었다. 북미에서는 목사들이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다고 설교하며, 경고의 목소리로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미국 전역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회와 부흥회로 모여들었다.⁵

북미의 기후는 그다음 해까지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았다. 강설과 된서리가 이어져 봄이 없어졌고, 여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억되었다.⁶ 미국 북동부 끝자락인 버몬트에서 구릉지의 돌밭을 일구던 농부, 조셉 스미스 일세 역시 몇 년째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 조셉 일세의 밭은 끊임 없는 서리로 시들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조셉 스미스 일세와 그의 아내 루시 맥 스미스는 계속 그 지역에 살다가는 재산만이 아니라 미래마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마흔다섯 살인 조셉 일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에게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일궈야 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거들 수 있는 열여덟 살 난 맏아들 앨빈과 열여섯 살 난 둘째 아들 하이럼이 있었다. 열세 살인 딸 소프로나도 이제 어머니 루시를 도와 집안일과 농장 일을 거들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또, 아직 어리긴 하지만 여덟 살인 새뮤얼과 다섯 살인 윌리엄도 전보다 가족에게 더 힘이 되고 있었으며 세 살배기 캐더린과 갓 태어난 돈 칼로스도 금세 자라서 제 몫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열 살 난 아들인 조셉 이세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4년 전에 그 아이는 다리에서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목발을 짚고 다녔다. 점점 회복이 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도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었다. 조셉 일세는 이 아들이 형들처럼 건강하게 자라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⁷

스미스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면 다 잘 되리라 확신하며 더 좋은 땅을 찾아 버몬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⁸ 조셉 일세는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농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변 사람들을 따라 뉴욕주로 가기로 했다. 잘만 된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조셉 일세는 거리까지 나와 배웅하는 앨빈과 하이럼을 뒤로 한 채 뉴욕으로 떠났다. 조셉 일세는 아내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운과 투자 실패로 가족은 늘 가난에 허덕였고 아직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터였다. 하지만 뉴욕주는 다를지도 몰랐다.⁹

그해 겨울, 조셉 이세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절뚝이는 걸음으로 눈길을 헤쳐 나갔다. 그들은 팔마이이라라는 뉴욕주의 마을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팔마이이라 근처에서 아버지 조셉 일세가 좋은 땅을 봐 두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시는 남편 없이 이사를 해야 했기에 마부로 하워드라는 사람을 고용했다. 하지만 하워드는 여행하는 동안 스미스 가족의 짐을 함부로 다루고, 루시가 준 품삯을 도박과 술로 탕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가족이 마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을 때, 하워드는 그 가족의 딸들을 자기 옆에 앉혀서

가려는 속셈으로 조셉을 마차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조셉이 걸을 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를 아는 앨빈과 하이럼은 하워드에게 몇 번이나 항의를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채찍 손잡이로 그들을 때려눕혔다.¹⁰

좀 더 나이가 있었더라면, 분명 조셉도 하워드에게 직접 맞았을 것이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거나 노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지만, 조셉은 육신의 약함이 무색할 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수술 당시 조셉의 다리에 칼을 대어 뼈에서 감염 부위를 도려내야 했기에 의사들은 조셉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거나 그에게 술을 먹여 고통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조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잡아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수술을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끝까지 깨어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 루시는

원래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조셉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는 역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일을 겪은 뒤 그녀는 세상에 못 견딜 일은 없을 것만 같았다.¹¹

마차를 따라 절뚝절뚝 걸으며 조셉은 어머니가 하워드의 행태를 겨우 참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삼백여 킬로미터를 여행해 온 지금, 루시는 하워드의 나쁜 행실에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팔마이이라까지 160여 킬로미터 정도를 남겨 두고 루시가 길에서 보낼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앨빈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하워드가 루시 가족의 모든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들의 말과 마차를 몰아 떠나 버린 것이었다.

루시는 그 남자를 술집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저 마차와 말은 물론 거기 실린 모든 짐은 내 소유입니다.”

그녀는 술집을 둘러보았다.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대부분은 루시와 같은 여행객들이었다. 루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저와 제 어린 여덟 자녀를 무일푼으로 남겨 놓고서 제가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워드는 마차를 몰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다 써 버렸으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버몬트주 샤론에 있는 이 방문자 센터는 1805년 12월 23일 조셉 스미스가 태어난 곳에 세워졌다. 배경에 보이는 석조 첨탑은 38피트 반(11.7m) 높이인데, 조셉의 생애 각 1년을 1피트로 환산한 것이다.

그러자 루시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마차는 내가 직접 몰겠어요.”

그녀는 하워드를 남겨 둔 채 술집을 나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노라고 다짐했다.¹²

남은 길은 차디찬 진창길이었지만, 루시는 가족을 무사히 팔마이이라까지 데려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매달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고생한 시간을 모두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가족은 곧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세를 내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지를 땅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상의했다.¹³ 그들은 식구들이 품을 팔아 근처 숲에 있는 땅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셉 일세와 제일 큰 두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물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건초를 베었다. 루시와 딸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파이, 루트베어, 장식용 식물 등을 만들어 팔았다.¹⁴

어린 조셉은 자라면서 다리가 더 튼튼해졌고, 이제는 가뿐히 팔마이이라 일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에 나가면,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조셉과 그의 가족이 정해 두고 가는 교회는 없었지만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높다란 예배당이나 침례교 집회소, 웨이커교 회당 또는 순회 감리교 목사들이 때때로 부흥회를 여는 캠프장에서 예배를 보았다.¹⁵

조셉이 열두 살이었을 때, 종교적 논쟁이 팔마이이라를

휩쓸었다. 비록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러 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조셉은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바람으로 전도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종종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은 조셉에게 그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인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셉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¹⁶

조셉은 교회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배를 드릴 곳을 한 군데로 정할 수 없었다. 여러 다른 교회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였다. 한동안 이런 논쟁을 지켜본 조셉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에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조셉도 알 수 없었다.¹⁷

조셉의 부모에게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루시와 조셉 일세는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루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종종 아이들을 데려가기도 했다. 수년 전 그녀의 자매가 죽은 이후로 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다.

한번은 조셉이 태어나기 전에 심하게 아팠을 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구주 사이에 어둡고 쓸쓸한 간극이 있음을 느꼈으며 다음 생을 맞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루시는 밤새 깨어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살려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가 찾고자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아직까지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했다. 구주의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낫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다녔다.¹⁸

조셉 일세도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교회를 가느니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조셉 일세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었다.¹⁹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참되다고 느끼는 것과 주변의 교회에서 보는 혼란과 불화 사이의 간극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느 날 꿈에서 다루는 전도사들이 마치 빨을 땅에 쑤서 박으며 울부짖는 소와 같음을 보았고, 그 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염려가 더 깊어졌다.²⁰

그리고 조셉은 부모님이 주변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더욱 혼란에 빠졌다.²¹ 영혼의 안녕이 걸린 문제였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일 년 넘게 저축을 한 끝에 스미스 일가는 팔마이라 남쪽에 맞닿은 맨체스터의 숲에 백이십 평 남짓한 땅을 계약할 만큼의 돈을 모았다. 거기서 그들은 샅일을 하는 틈틈이 단풍나무의 달콤한 수액을 모으고 과수원을 만들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들판을 일궜다.²²

어린 조셉은 농사일을 돕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와 영혼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팔마이라에서의 종교 부흥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전도사들은 여전히 개종자를 찾기 위해 팔마이라와 주변 지역에서 경쟁했다.²³ 조셉은 밤낮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장엄하고 질서있게 하늘을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가득한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들의 강인함과 지성에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위치한 이 통나무 집은 스미스 가족이 버몬트에서 이주한 후 지은 집의 모형이다. 뒤편으로 성스러운 숲이 있다.



놀라워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셉은 어떻게 그분께 닿을 수 있을까?²⁴

조셉이 열세 살이던 1819년 여름, 스미스 가족의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감리교 전도사들의 총회가 열렸다. 총회가 끝나자 그들은 스미스 가족과 같은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 전도사들이 성공을 거두자 지역 목회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됐고, 금세 개종자를 찾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졌다.

조셉은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들기도 하고 개종자들이 기뻐 소리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조셉 역시 그들과 함께 기쁨에 겨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말과 의견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라고 그는 자문했다.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과 교회가 종교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지 알지 못했다.²⁵

해답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런 극심한 소란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리를 찾을 수나 있을지 궁금했다.²⁶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신약전서의 야고보서 일 장을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²⁷

조셉은 집으로 돌아가 성경의 그 구절을 읽어 보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이전에도 그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듯이 성경을 찾아보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셉은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껏 한 번도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²⁸ 아무리 어설피게 여쭙는 질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실 것이었다.

인용된 문헌은 전부 saints.lds.org/ko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4-5, 19, 23-24.
-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5, 7-8, 11.
- Wood, *Tambora*, 97.
- Wood, *Tambora*, 78-120; Statham, *Indian Recollections*, 214;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116-18.
- Wood, *Tambora*, 81-109;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76-86, 115-20.
-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48-50, 194-203.
-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1]-book 3, [2]. 주제: 조셉 스미스의 다리 수술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3]; Stilwell, *Migration from Vermont*, 124-50.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4];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8-19, 25-28.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32.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6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6]-[7].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7]; 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12.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 Cook, *Palmyra and Vicinity*, 247-61. 주제: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조셉 스미스 시대의 기독교회
-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2, in *JSP*, HI:11-12.
- 조셉 스미스—역사 1:5-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 in *JSP*, HI: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6]; “Records of the Se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Palmyra,” Mar. 10, 1830.
- Asael Smith to “My Dear Selfs,” Apr. 10, 1799, Asael Smith, Letter and Genealogy Record, 1799, circa 1817-46, Church History Library.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miscellany, [5]; Anderson, *Joseph Smith’s New England Heritage*, 161-62.
- 조셉 스미스—역사 1:8-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I: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8]-[1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I:11. 주제: 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 주제: 각성 운동과 부흥회
- 사도행전 10:34-3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2, in *JSP*, HI:12.
- Neibaur, Journal, May 24, 1844,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조셉 스미스—역사 1:10;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in *JSP*, HI:494.
-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7; 조셉 스미스—역사 1: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I:210 (draft 2).
- “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야고보서 1:5.
- 조셉 스미스—역사 1:1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I:210-12 (draft 2); 야고보서 1:6.





신앙의 초상

목공예가인 파잉가는 아내와 세 명의 자녀 외에 세 명의 다른 아이도 돌보고 있다. 여러 식구를 부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킬 때, 그들은 항상 부족함 없이 넘쳐났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파잉가 팡구나

통가 통가타푸

아내인 아나우와 막 결혼했을 무렵, 나는 나무를 깎아 작은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곤 했다. 어떤 날은 장사가 좀 되었지만, 아무것도 팔지 못한 날도 있었다.

내 축복문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을 잘 하게 되도록 축복하실 것이며, 그 재능으로 사람들을 돕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다. 이러한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다.

우리는 여러모로 축복받았다. 친척들은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키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파잉가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liahona.lds.org를 방문한다. 신앙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LDS.org의 미디어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회의 자립 계획을 통해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srs.lds.org를 방문한다.



나는 오늘 영감을 받아 방문을 간 것이었으며,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처음 받은 느낌을 따랐다

어느 일요일, 나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거의 오후 내내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바깥이 어둡게져 있었다. 나는 돌아오는 한 주를 계획하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때, 가정 복음 교육을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벌써 저녁 8시나 되었기에, 방문은 돌아오는 화요일에 가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날 저녁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다.

페루 리마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교사로 일하던 시절에 들었던 권고가 떠올랐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다. “처음 받은 영의 느낌을 따르십시오.” 나는 즉시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방문을 가기로

결정했다.

집을 나섰을 때, 길을 걷어가는 우리 와드의 한 어린 제사가 보였다. 나는 다가가서 같이 가정 복음을 가 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첫 번째 방문 가정에 도착하자, 그 맥의 형제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다. 나는 그분에게 당신을 만나러 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형제님은 싱긋 웃으며 자신이 다음 날 수술을 받아야 하니 축복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분에게 축복을 드렸고, 또다시 다음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저녁 8시 40분쯤에 우리는 다음 가정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우리를 보고 그 가족은 놀라워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가족의 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보였다. 나는 그분에게도 축복을 주었다.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내 어린 동반자에게 모로나이서 7장

13절을 들려주었다.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오늘 영감을 받아 방문을 간 것이었으며,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 어린 제사는, 나를 만나기 직전에 영을 인식하는 법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내 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가정 복음 교육을 가야 한다는 느낌이 내가 방문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 어린 제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느낌을 따랐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받는 영의 첫 느낌을 따를 때 훌륭한 축복들이 온다는 사실을 안다. ■

케니 키스피투팍, 페루 리마

우리는 모두 친구가 필요하다

교회 문 앞에서 나는 단호하게 결심했다. “오늘 교회에서 친구를 한 명도 못 찾으면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야.” 이전에 친구와 몇 번 교회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구도자의 입장으로 혼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교회에 참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몇 가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을 때였다.

교회에 들어섰을 때, 어느 젊은 독신이 활짝 웃으며 힘찬 악수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데인 매카트니라고 했다. 데인은 내가 속한 대학 미식축구팀에 입단 시험을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알았다. 데인은 나에게 교회 모임 동안 자신과 함께 앉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렇게 내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졌다. 모임이 끝난 후, 데인은 나를 그의 부모님 집에 초대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는 일요일이었다. 데인과 그의 가족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내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몇 주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만약 그날 데인이 그저 피상적인 친절만 보였다면, 나는 아마 성찬식 후에 교회를 나왔을 것이고, 노력해 봤지만 교회는 나와 맞지 않는다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친절을 베푸는 것(friendly)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친구(friend)가 되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을 의미한다. 내가 개종하는 과정에서 매카트니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14년 전의 일이다. 나는 그 후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다섯 명의 훌륭한 자녀들을 축복받았다. 또한, 교회에서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나는 교회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친구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회원들을 만나 상담해 왔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매카트니 가족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들에게도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바란다.

데인은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었다.

그날 데인이 나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준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교회를 알아보고 있거나 교회를 처음 접하거나,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팀 오버턴, 미국 애리조나주



위안의 축복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몸 상태가 더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어머니는 낙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보구나.”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비록 아버지의 삶이 연장되는 기적은 아닐지라도 분명 우리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인 베스가 어느 날 아침에 그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내게 물었을 때 한 가지 기적이 시작되었다. 나는 베스에게 오후에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봐 주기로 한 사람이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베스는 너그럽게도 내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 주고, 저녁 식사도 챙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베스가 정말 고맷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아버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기운이 없으셨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극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셨다. 아버지는 세 시간 넘게 완전히 깨어 계셨고, 우리는 병동 근처를 여러 차례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 시간에 다른

방문객은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축복을 받았다.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다. 아버지는 내게 지상의 삶을 떠나는 소회를 이야기하셨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자신의 간증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오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아버지는 삼 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시간이 바로 베스가 우리 아이들을 돌봐 준 그 오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베스에게 이메일을 썼다. 베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베스는 나를 위해 축복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베스에게 영감을 주시어 그녀 본인을 통해 그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었다. 가슴속으로 감동이 밀려왔다.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베스에게서 답장이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안과 은혜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간증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말이죠. 나는 근래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위안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스는 나를 위해 축복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베스에게 영감을 주시어 그녀 본인을 통해 그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었다. 가슴속으로 감동이 밀려왔다. 나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위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 ■

세라 비버, 캐나다 앨버타 캘거리



경전 옆에는 최근에 내가 성전에 가져갔던 남편 조상들의 성전 카드 네 장이 놓여 있었다.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나는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했다. 할 일은 많았지만, 오늘 밤에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하기에 시간이 많지 않았다. 마당 일을 할 수도 있고, 조카에게 생일 선물로 줄 누비이불을 만들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다 문득 에스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큰 계명-주님을 사랑함”,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쪽)

‘그래, 경전부터 읽어야겠다!’ 책상에 앉아 전날 공부한 곳의 뒷부분부터 경전을 읽어 내려갔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생각했다. 경전 옆에는 최근에 내가 성전에 가져갔던 남편 조상들의 성전 카드 네 장이 놓여 있었다. 남편 가족 중에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시부모님이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조상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나는 FamilySearch에 들어가서 이 카드에 있는 이름들이 의식이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시아버지의 가계를 따라가며 성전 아이콘들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내가 인봉 의식을 받으려고 성전 카드를 준비해 두었던 몇 분의 의식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성전 카드를 잘못 관리해서, 인봉 의식을 받지 않은 게 분명했다! 나는 얼른 성전 카드를 재인쇄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제 가서 내가 오늘 해야 할 다른 일들을 하려무나.’

내가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평안이 느껴졌다. 주님은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나의 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은 분명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울 때, 다른 것들은 나의 영적인 유익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역사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

애슐리 코벨, 미국 오클라호마주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

리드 타테오카

20 11년 3월,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다. 실로 사상 최악의 강진 중 하나였다. 그 당시 나는 지진의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속하는 일본 센다이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지진과, 뒤이어 일어난 쓰나미로 16,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부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잃지 않았다. 지진 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는 동안, 나는 함께 봉사했던 선교사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후로 당신의 선교사들을 구하시고자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키셨다.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다

우리 선교부의 코리아마 지역에서는 대부분 목요일에 지도자 모임을 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임이 금요일로 잡혔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지진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다. 원래 지도자 모임에는 주로 지역 및 구역 지도자들만 참석한다. 그런데 그날은 지역 내 모든 선교사가 지도자 모임에 초대되었다. 그 덕분에, 지진과 쓰나미로 훼손된 원자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봉사하던 일본 센다이 지역의 선교사들은 지진 발생 당시 코리아마의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지도자 모임에 참석하며 숙소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신 것이다.

지진이 닥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었던 선교사들은 그들만이 아니었다. 선교사들은 이미 주님과 영이 주시는 느낌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 다행히 다른 선교사들도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주님은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교사들을
보살피셨다.

지진이 일어나자 대피소로 간 선교사들이 많았다. 어떤 지역 선교사들은 본능적으로 예배당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았으며 선교사들은 그 안에서 성신이 주시는 평안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운이 좋았던 몇몇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으나 난방, 물, 전기, 음식은 끊긴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무사했다.



사진: 글쓴이와 미디어를 제외한 제공



길을 가로막아 인도하시다

처음에 나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지진이 잦아들자마자 선교사들을 숙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모든 버스와 기차의 운행이 중단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교사들을 코리아마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셨다.

나는 진원지 근처의 선교부 회장 사택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가 뺏뺏이 늘어선 파손된 도로를 여덟 시간이나 달려갔으나 길은 차단되어 있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코리아마에 남아 있었던 덕분에 우리는 다른 선교사들의 대피를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지진에 이어 휘발유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파손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연료 트럭은 매우 천천히 움직이기에 휘발유를 넣으려면 세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마저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섬 반대편에 있는 니가타의 안전한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대피시킬 때의 일이다. 우리는 한 번 주유를 하고 18시간을 달렸는데, 그 동안 유량계의 바늘은 막 주유를 마친 상태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목적지인 니가타에 들어섰을 때에야 바늘이 갑자기 뚝 떨어지며 연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위태로운 여행

다행히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심각한 재난

속에서도 질서 정연하게 대피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장거리 이동은 위험한 일이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고, 대중교통은 모두 마비된 상태였다. 수도와 전기 공급도 중단되었으며, 휘발유나 음식을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산악 지역에 있는 장로 두 명과 산 넘어 섬 반대편에 사는 장로 두 명을 데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속도로가 모두 폐쇄되었으므로, 마지막 장로들을 대피시키러 가기 위해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타고 대여섯 시간을 달려 북쪽에 있는 산을 오르고, 그 산에서 내려와 쓰루오카까지 두 시간을 달린 후, 거기서 안전한 지역까지 네 시간을 더 가야만 했다.

우리는 3월 16일 이른 아침에

출발했고, 오후 5시에 오수기 장로와 유아사 장로의 숙소에 도착했다. 뒤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두 장로에게 가기 위해 우리는 남쪽으로 돌아가서 산 정상을 넘어 쓰루오카시까지 가야 했다. 차에는 절반이 채 못 되는 기름만 남아 있어서 이제는 길을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게 남은 두 장로를 데리러 길을 막 나섰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곧 눈보라가 치며 시야를 가렸고, 시속 24km 이상은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고속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오후 7시 30분경, 마침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길을 막았다. 경찰관은 눈사태로 산악 도로가 차단되어 더는 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눈사태가 난 지역을 돌아서 섬 반대편으로 가려면, 차를 돌려 다른 경로로 가야만 했다. 그런데 길을 우회해서 가기에는 기름이 부족했다. 이대로는 쓰루오카에 있는 레이 장로와 루우페나흐트 장로에게 갈 방법이 없을 것만 같았다.

기적 같은 여정

가슴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경찰의 지시대로 차를 돌렸다. 나는 차에 있던 장로들에게 야마가타 와드의 모든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휘발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차를 멈추고 우리가 끌어모을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다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적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또다시 주님께 의지했다.

선교사들은 모든 활동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휘발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유소도 기름이 바닥나서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바로 그때, 장로들은 저활동 회원인 쓰치하시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쓰치하시 형제는 우리에게 휘발유 20L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고마운 형제를 만나려면 목적지와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다시 한 시간을 가야만 했다. 20L라면, 도움은 되겠지만 눈사태를 피해 돌아갈 만한 양은 아니었다.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서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두 장로를 데려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우리는 신조시까지 가서 휘발유 20L를 받았다. 조금 있으니 선교부 보좌인 요시다 회장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신조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우리가 목적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렇다고 직접 와서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다 지도를 본 그가 감정이 북받쳐 겨우 말을 이었다. “신조에서 장로들이 있는 쓰루오카까지 바로 이어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산악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사태 지역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우리가 받은 휘발유는 눈사태 지역을 안전하게 우회하여 장로들이 있는 지역까지 가기에 딱 맞는 양이었다.



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의 일환으로 성신의 은사를 축복받습니다. …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성신의 느낌을 꼭 따라야 합니다. 영은 우리가 유혹과 위험을 피하도록 돕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브리스틀식으로 정돈하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42쪽.

지진이 지나간 후, 나는 각 선교사와 연락을 하며 그들이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기 직전에 모두 안전한 장소로 인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대피소 4층으로 올라가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던 두 명의 선교사는 큰 위험 중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았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힐라맨의 다음 말씀이 자신들이 겪은 상황을 대변하는 것만 같다고 느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앨마서 58:11)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가족을 위한 선교 사업

안드레아 고메스 라구네스

선교사 부름장을 받고 멕시코 베라크루스 선교부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베라크루스에 살았고, 지금도 친척들 대부분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그래서 친척들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정말 흥분되었다.

하지만 막상 임지에 가서는 친척들이 있는 지역 근방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나는 언젠가 우리 친척들을 방문하도록 동반자들에게 친척들의 주소를 건네주었다.

선교 사업을 나온 지 15개월가량 지났을 때, 나는 무릎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릎이 매우 아팠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었다. 의사는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그 말은 예정보다 일찍 귀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선교 사업이 삼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나는 주님께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위안을 주시기를, 가능하다면 기적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마음속의 큰 평안으로 찾아왔다. 선교부 회장님의 부인은 친딸을 염려하시듯 내게 집에 가서 몸을 회복하도록 진지하게 권하셨다. 나는 가족들에게 2주 안에 귀환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 다음에 선교부 회장님과 접견을 했다. 회장님은 우리 어머니와 통화를 하셨다며 어머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선교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몸을 회복할 동안 본인이 직접 베라크루스로 오셔서 우리 이모와 삼촌 댁에 머물며 나를 돌봐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회장님은 가능하긴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마침내 승인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서 가슴이 뛰었다. 이제 이곳에 남아서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으리라! 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

수술을 받던 날, 선교부 회장님은

**선교부 회장님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남아 선교
사업을 마치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메스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왜 베라크루스에 남겨 두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나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리라고 다짐했다.

며칠 전부터 베라크루스에 와 계셨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 너를 보러 병원에 오신단다. 조상들에 관해 여쭙볼 좋은 기회일 듯싶구나.”

나는 ‘정말 좋은 생각이야!’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아도 친척들에게 조상들에 관해 물어보고 싶던 참이었다. 할머니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게 물으셨다. 나는 회복에 관해 이야기한 다음, 구원의 계획을 말씀드렸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염두에 두고서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마침내 할머니가 내가 바라던 질문을 하셨다. “내가 우리 영감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기쁨에 차서 대답했다. “그럼요, 할머니. 만나실 수 있고 말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다. 할머니와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할머니는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질문하셨고, 나도 패밀리 트리를 작성하는 데 필요했던 가족에 관한 정보를 할머니께 여쭙었다. 나는 영의 인도로 할머니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셨음을 느꼈다.

나중에는 다른 친척들도 방문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가족들의 이름을 더 많이 찾아냈다. 또한, 나는 그때 방문했던 모든 친척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라크루스로 보내시고, 수술 후에 나를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가족 역사에 대한 큰 애정을 품고 다시 선교부로 복귀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나는 무사히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일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정말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일 년이 지나면 할머니를 위해 성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마음이 기뻐다.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던 날, 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할머니는 60년을 넘게 함께했던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신 것이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베라크루스에 머물며 가족들을 가르치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언젠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음을 안다.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다.”(이노스서 1:27) ■

글쓴이는 멕시코 치와와에 산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원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평안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를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 루종일 가르침을 전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 보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마가복음 4:37~39)

사도들이 바람과 비, 바다와 같은
자연의 요소들이 주님의 조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비록 거룩한
사도 직분에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해도, 그들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으며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일터와 가족을 뒤로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그들은 그분이 가르치신 놀라운 것들을
들었으며, 그분이 행하신 강력한

소란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시대에,
구주께서 약속하신 무한하고 영원한
평안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오래전, 폭풍이 일던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성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적 평안을 찾다

그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에는
구주께서 지니신 놀라운 힘의
표적으로서 물질적인 평안과 변영을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이 신앙
안에서 태어나서,
간증으로 닦을
내리고, 사랑으로
양육되며, 지속적인
순종과 회개를
통해 나타나는
내적인 평안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은
신앙 안에서 태어나서, 간증으로 그
닦을 내리고, 사랑으로 양육되는 내적
평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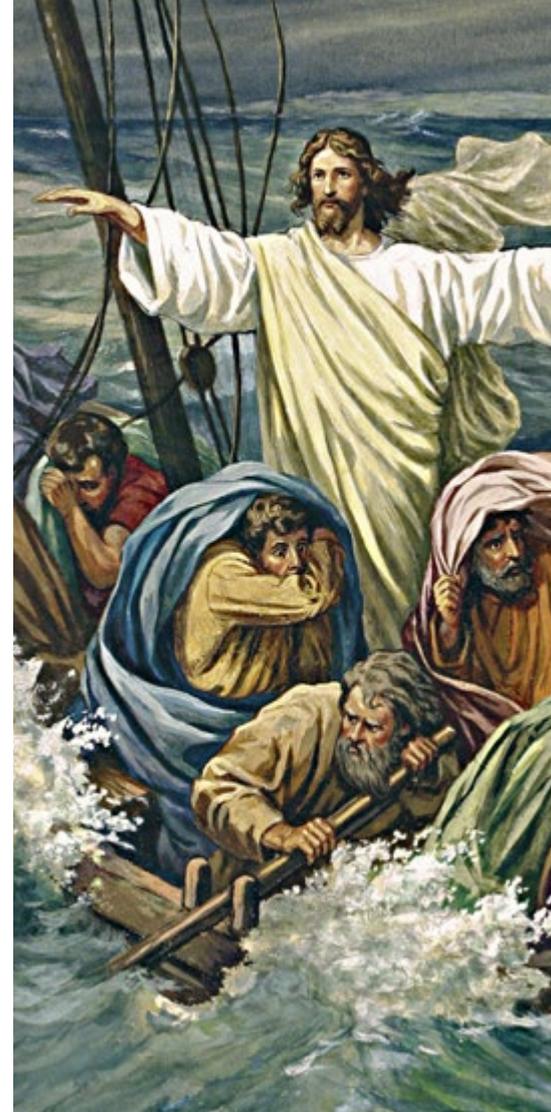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으며,
분명 그러한 놀라움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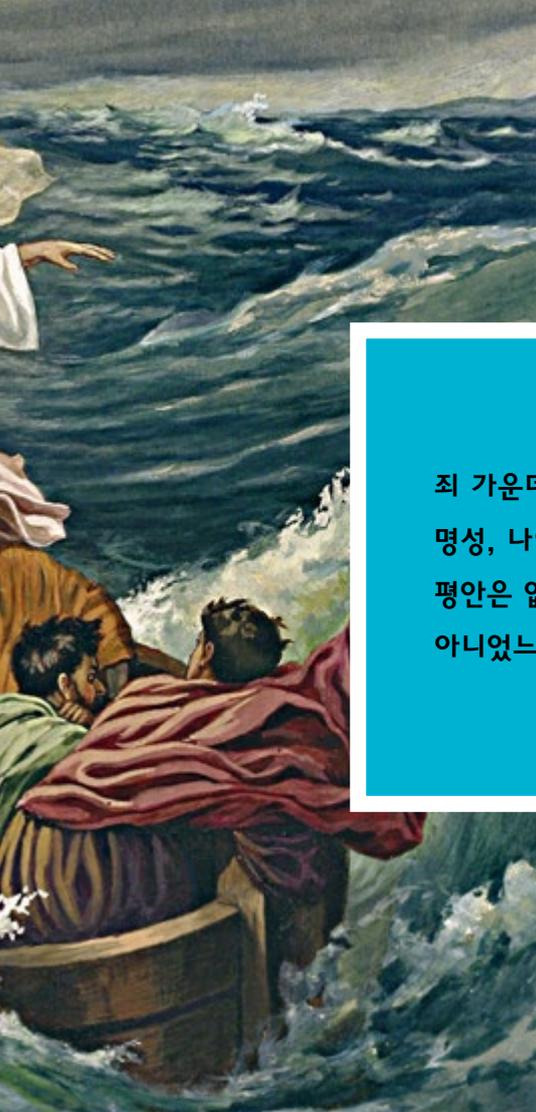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마가복음 4:40~41)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에
울려 퍼지는 영의 평안입니다. 진정
이러한 내적 평안을 알고 경험하기만
한다면, 세상적인 부조화나 불일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두는 한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일과
인기, 명성, 나아가 변영이 있을 수는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엢마서 41:10) 했습니다.
계시된 진리와 조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비열한 마음과 다투는 정신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천박함과 난잡함, 방종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약물이나 술, 음란물
중독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또는 그 외 어떤
방식으로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할 때까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혼란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일과 인기, 명성, 나아가 번영이 있을 수는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강조체 추가)

평안, 즉 우리가 온 영혼으로 참되다고 느끼고 있는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옵니다. 그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에 크나큰 평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앙과 신뢰로 그분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모두 복음이 주는 감미로운 내적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

200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한복음 14:27)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세상이 인정하는 종류의 평화, 곧 다툼과 혼란이 없는 안전과 무사함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까? 역사의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초대 사도들은 남은 생애 동안 수많은 시련과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은 평안에 대한 약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때때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빌립보서 4:7) 갈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그 평안은 오직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모로나아서 7:16) 그리스도의 빛을 따를 때만 느낄 수 있으며, 그 빛은 우리를 이끌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께서는 영광스럽지만 두려운 속죄의 과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사도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약속을

때때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빌립보서 4:7) 갈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평화 vs.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새라 헨슨

사 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혼란에 휩싸인 세상에서 평화를 얻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좋은 친구? 사랑하는 가족? 안전과 보안? 때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생이란 절대 빈틈없이 완벽하거나 수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세상은 어떤 분쟁도 없어야만 평화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통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신앙을 품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한복음 14:27; 강조체 추가) 세상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자.

세상의 평화

1. 평화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주어져야 한다.

2. 역경 중에는 평화를 느낄 수 없다.

3.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다.

4.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평화가 찾아온다.

5. 내 잘못과 약점을 인정하면 평화로울 수 없다.

6.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때만 평화를 느낄 수 있다.

7.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 찾아온다.

8. 나의 평화는 내 힘으로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평화

1. 평화를 느끼려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 하나님을 의지하고 장래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¹

2. 시련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

3.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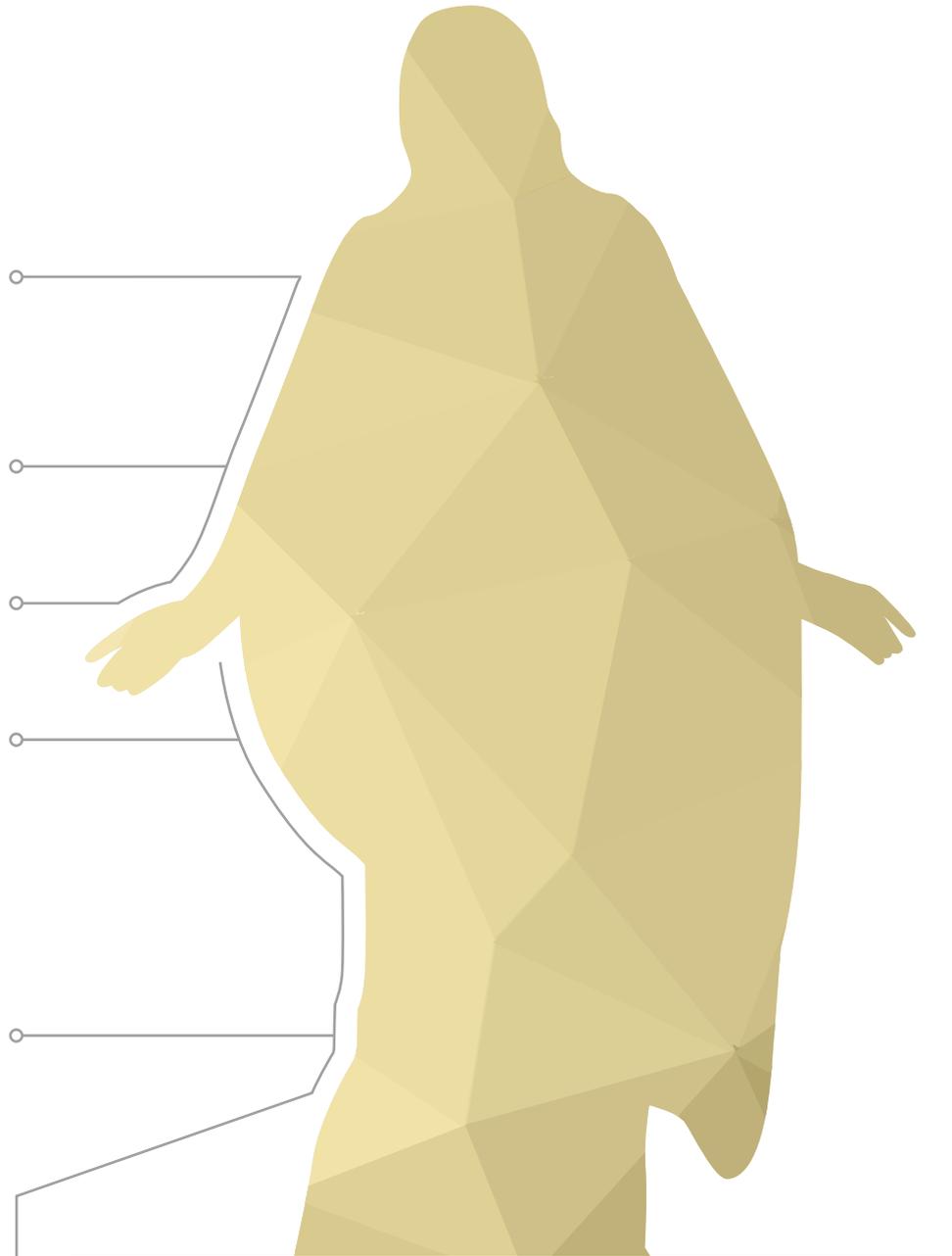
4. 복음대로 생활하고 계명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온다.

5. 진정한 회개는 평화를 가져다준다. “회개라는 말에 깃든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전의 문제와 버릇, 슬픔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약속에 있다. 회개는 복음 어휘 가운데 가장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단어 중 하나”이다.²

6.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평화가 온다.

7.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평화가 온다.

8. “의로운 이에게 약속된 보상인 평안을 얻는 것은 … 구주의 사명과 속죄 희생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은사”이다.³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둔다면 우리는 진정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엘마서 58:11) 이생에서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심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다. 구주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구주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

주

1. 제프리 알 홀랜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45쪽.
2. 제프리 알 홀랜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성도의 벗, 1997년 1월, 83쪽, 번역 수정.
3. 쿠엔틴 엘 쿡,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리야호나, 2013년 5월호, 33쪽.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금하지 못하실 거예요

블로섬 래리노



1978년 가나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부는 교회와
교회의 예배 의식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

때문에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그 후 10년간
교회가 성장하면서 소문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에서 첩자들을 보내 우리 정부를 엿탐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난다. 여기에 당시
돌아다니던 온갖 반물문 서적까지 더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의심은 증폭되었다.

금지 조치

1989년 6월 14일, 정부는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선교사들을 귀환 조치하며 모든 교회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18세 소녀였던 내가
아는 것이라곤 어느 날 갑자기 더는 교회에 갈
수 없다는 발표가 났다는 것뿐이었다. 군인들은
교회 건물을 지키며 우리의 접근을 막기까지
했다.

더는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성찬식 모임을 하는 문제로
교회 지도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가정에
신권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권 소유자가
있는 가정으로 가라는 권고도 전해졌다.
당시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매우 특별한
시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간증을 나누었고, 그
덕분에 더 가까워졌다.

어떻게 자신을 몰몬이라고 부를 수 있니?

금지 기간 중에 한번은 집을 떠나 기숙학교로
가야 했던 적이 있었다.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한 선생님이 내가 후기 성도라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다.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불러내어
교회에 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심한
말도 서슴없이 퍼부으셨다. 나는 종종 정말
궁금했다. “왜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복음의 가르침을 믿긴
하지만, 나도 사람인데.”

어느 날, 선생님은 어떻게 아직도
자신을 몰몬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내게 물으셨다. 금지 조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냐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어른에게 말대꾸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그분은 선생님이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내게 진짜로 간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영이 느껴졌고 나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금하지 못해요.”

그 후로 선생님은 더는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1990년 11월, 정부는 금지
조치를 폐기하고, 교회 회원들이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볼 수 있다고
공표했다. 학교 캠퍼스 내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ILLUSTRATION BY TOBY NEWSOME

가나의 금지 조치

1989년 6월 14일 가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교회의 모든 건물이 폐쇄되었지만, 6,000명의 회원은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보아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1990년 11월 29일 정부는 교회에 내린 금지령을 철폐하고 모든 활동을 재개해도 좋다고 허가했다. 오늘날 가나에는 회원 72,000여 명과 한 곳의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성전이 있다.

블로섬이 청년였을 때,
가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소식을 선생님이 보내 주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겨우 접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나에게 사람을 보내셨던 것이다. 나를 보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 교회에 내려졌던 금지령이 풀렸단다! 다시 교회에 갈 수 있게 된 거야.”

선생님은 나를 위해 기뻐해 주셨다.

그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금하지 못한다

금지 조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진짜 형제자매가 되었다. 지금은 모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소식을 전해 듣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척자처럼 느낀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시련이 오더라도 신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말이다. 무언가가 참됨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뺏을 수 없다.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금하지 못한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산다.

가나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가나의 종교 금지령과 가나의 성도들이 어떻게 계속 예배했는지 알고 싶다면, LDS.org에서 “Our Home Became the Sacrament Hall: Sabbath Day Worship During the Freeze”라는 동영상을 시청한다.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방법

열 두 살이 되면서 저는 어떻게 복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고향인 이탈리아 타란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형과 함께 선교사들을 만나 교회 회원이 된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이지만, 저는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찬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성찬을 전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교회로 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지부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시모, 주님은 네가 신권을 받고 집사에 성임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주님께서 네게 바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며, 그분이 직접 제게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부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을 때, 마치 주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성찬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임감과 소속감을 느꼈고, 제가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면서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맡은 책임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꼈으며,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했을 때, 저는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주님과 나의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도자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다

저는 지부 회장님과 접견하는 동안 제게 책임을 맡기시는 분이 지부 회장님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저는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더 굳건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부름을 받거나 교회 공과 반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곧 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일요일마다 영적인 경험의 깊이를 더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의식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다

우리는 또한 복음의 의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임재를 깨달음으로써 주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성찬식과 같은 의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84:20) 성찬을 전달했을 때, 저는 고작 열두세 살 정도의 아이였지만, 제가 주님의 손안에 들린 도구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인지하고, 제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매주 이런 의식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신성한 경험을 한 덕분에 주님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는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성찬을 전달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는 가볍게, 어쩌다 한 번, 아무 생각 없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소망하고 결심하고 준비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삶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대비해 자신을 준비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로서 성찬을 사용해야 합니다.



굳건한 개인적인 관계

주님과 더 견고한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느낄수록 그분께 봉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교회에 참석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스러운 의식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에게서, 그리고 의식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친구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았을 때 나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분투해야 했다.

니노스카 나우랏

어느 금요일, 친구
페르난다(가명)가 수업에
빠졌을 때 나는 그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다. “페르가 어디 아프대? 괜찮은
거야?” 수업이 다 끝났을 때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물어보았다. 한
친구가 대답했다. “아픈 건 아니고, 그냥
심리상담사를 만나러 가야 했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는 페르난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해를 했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 안
되어, 페르난다는 치료 때문에 입원을
했고, 우리는 몇 주 동안 페르난다를
만나지 못했다.

나와 친한 사이였지만, 페르난다는
나에게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다. 페르난다는 수치심 때문에 그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고 있었다. 나중에 페르난다는 남들이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을 딱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페르난다를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저 안타까웠을 뿐이었다.

페르난다의 소식을 들었던 첫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지만, 너무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내 세계는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마치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고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나는 혼란스럽고 외로웠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페르난다를 돕기 위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힘을 모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친구나 나 자신을 위로할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영감을 구하려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다음 주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미나리 새벽반에서 선생님은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어려움과 걱정에 관해 어떻게 직접 도움을 간구했는지를

상기시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찾고 그분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슬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주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평안을 찾기에는 아직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많았다. 물론,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어야 했다. 즉, 신앙을 행사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나는 구주께서 내 짐을 덜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노력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친구의 우울증이 결국에는 끝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표면적인 상황은 여전히 혼돈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나는 차분해졌고, 균형을 되찾았으며, 평안을 느꼈다. 어머니는 내가 평안을 찾도록 계속 격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친구는 괜찮아질 거야. 너도 그럴 테고 말이다.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있으렴.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될 거야.”

친구를 도우며

마침내 페르난다는 학교로 돌아왔다. 나는 내 친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것은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평화를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친구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또한 페르난다에게 행복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기쁨을 찾기를 바라신다고 말해 주었을 때에는 가슴속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그렇게 될 수 있다.

사는 동안 고뇌와 슬픔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이 있기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항상 기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이 나와 페르난다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두셨음을 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길을 걷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각각의 길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 모든 여정과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

글쓴이는 칠레 마울레에 산다.



우울증에 대처하는 법

우울증을 앓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친구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친구가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그분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자해한다든지), 그리고 친구의 부모님이 그것을 앞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상담 선생님,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알린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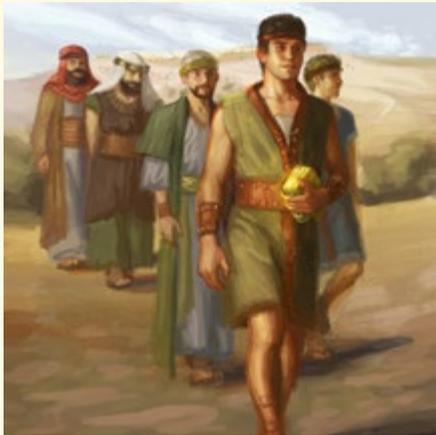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3

8

니파이전서 3:7

주님께서는 니파이에게 가서 행하라고 명하셨다.



1 내가 가서
 “배우고 회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말씀을 들은 다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각] 대회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 찬송,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분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을 가서 행한다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힘이 더 커질 것이며, 머지않아 그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마음이 감사함으로 넘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73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교리 익히기의 선별된 구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되었다.

2 행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60쪽.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앞이니이다 하였더라.

3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주님은 우리의 발전, 진보, 성장을 위해 모든 계명을 주셨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36쪽.

4 주께서 ... 길을 예비하실 것이[니]
 구약에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표시가 잘 되어 있는 좋은 길을 만드는 것(신명기 19:3 참조), 또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을(이사야 40:3 참조) 의미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찾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길을 항상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니파이가 했듯이 먼저 신앙으로 행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길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써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모로나아서 10:7)

5 이를 수 있도록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힘

담, 무례한 말, 욕설. 학교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접하기 쉬운 말일 것이다. 때로 여러분은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좋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독적이며, 저속하고 외설적인 언어나 행동은 부도덕한 농담과 더불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¹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해도, 무례한 말은 남에게 상처를 준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하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친절하게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들이 그런 말을 계속할 경우, 조용히 자리를 떠나거나 대화 주제를 바꿀 수 있다.”²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함을 믿는다고 설명한다.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적이 되기보다는 모두를 따뜻하게 대하는 친구가 되기로 결정한다.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친구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는 “깨끗하고 지적인 언어는 총명하고 건전한 정신을 증거”한다고 가르친다.³ 여러분의 신앙에 걸맞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영이 함께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깨끗하고 고무적인 말을 사용하여 타인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려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친구들과 저에게는 팔찌가 있어요. 한 명이 다른 사람에 대해 뭔가 안 좋은 말을 하면, 우린 그 사람의 팔찌를 튕겨요.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죠.

캐롤라인 제이, 18세, 미국 유타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먼저 주님께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사람의 가장 좋은 면을 보고 그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세요.

빅토리아 케르시아 엠, 19세, 브라질 피아우이

서로 다른 점을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우리는 모두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친구들이 알아야 해요. 사람들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구주의 속죄 희생에서 찾을 수 있는 변화의 권능을 믿어야 해요.

에스터 엠, 19세, 콩고 민주 공화국 음부지마이주

직접적으로 말해요

친구들에게 친절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어요. “그만해 줄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혹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건 무례한 거야.” 결국,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이니깐요.(마태복음 22:39)

클레이턴 피, 14세, 미국 애리조나주

친구들의 시각을 바꿔 주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해 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를 슬프게 하기보다는 행복하게 해 주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말이지요. 본인이 그런 무례한 말을 듣는 당사자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친구들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은 영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대런 오, 15세, 미국 유타주



용기를 내세요

에스터, 조셉 스미스, 애굽의 요셉, 그리고 그 외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친구가 남에 대해 부적절한 말을 그만하도록 제지할 수 있어요.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할 용기를 내야 했죠. 결국, 친구들은 깨끗하고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도 금식은 그러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이끌어 낼 용기를 주시기를 신앙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파울라 에이치, 17세, 열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모범이 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간에,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긍정적인 면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의 방향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즈 장로, 24세, 한국 서울 남 선교부

문제점을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경험과 교류를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저속한 말을 하면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더럽혀져서 좋지 않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뿐 아니라 좋은 사람들은 나쁜 말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란 것은 사람을 일으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자신을 낙담케 했던 부정적인 말과 자신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랑이 담긴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말만 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북돋우고 강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구주의 길을 따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 비 병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 집에 복음의 빛을 비출래요”,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7쪽.

쓰는 사람을 피하기 마련이에요.

엘리사 페헤이라 에스, 16세,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

주

1.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128쪽.
2. 신앙에 충실함, 129쪽.
3.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0쪽.

다음 질문

“저는 오랫동안 같은 유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8년 3월 15일 목요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해 주십시오.(“기사 제출 혹은 피드백” 클릭) 표현의 정확성과 분량 조절을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 하나님 계획 굳게 믿고 주 따라가리라”(어린이 노래책, 48쪽)

이 스티븐이 독일에서 처음 참석한 교회 모임이 이제 막 끝났어요 정말 다들 잘 알았는데,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무척 비슷했어요. 이곳에서는 영어로 통역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 헤드폰을 써야 했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엄마와 아빠는 뒤에 앉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이스티븐과 동갑인 아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피노토 가족이란다.” 엄마가 이스티븐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안마르코가 학교에서 너랑 같은 반이 될 거야.”

“좋아요!” 이스티븐이 지안마르코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아이 이름은 영어 이름 “존”과 “마크”를 합쳐서 끝에는 “오” 발음을 넣은 소리와 비슷했어요. “넌 어느 나라에서 왔어?” 지안마르코도 웃어 주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교회의 편에 서서

트레이시 카터 및
메리사 데니스
실화에 근거함



하지만 중국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어.”

“우와!” 이스턴이 말했어요. “난 중국에 한 번도 못 가 봤는데.”

다음날 이스턴은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조금 긴장이 되었죠. 그때 지안마르코가 교실 반대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적어도 친구 한 명은 벌써 있었던 거예요. 반에는 세계 곳곳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스턴은 이 학교를 좋아하게 될 거 같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생님이 모두에게 웃어 보이셨어요. “저는 알바노 선생님이예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체성이라는 말의 뜻을 말해 줄 사람이 있나요?”

한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뜻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이에요.”

“맞아요!” 알바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서로 알아보시다. 여러분 정체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드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죠?”

“저는 비디오 게임이 좋아요!” 첫 번째 줄에 앉은 소녀가 말했어요.

알바노 선생님이 미소 지으시며 칠판에 *취미*라고 적으셨어요. “다른 것은요?”

지안마르코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알바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국가*라고 적으셨습니다.

이스턴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녀요” 뒷줄에 앉은 소년이 말했어요.

‘훌륭한 답이네!’ 이스턴은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에 누군가가 웃었고,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따라 웃었어요. 이스턴이 당황해서 지안마르코를 바라보았어요. 지안마르코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왜 아이들이 웃는 거지?

집에 도착한 이스턴은 엄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엄마는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중요한지 모른단다.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 그래요?” 이스턴이 말했어요. 이스턴은 교회가 시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몇 주 후, 알바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가족의 정체성에

관해 부모님과 함께 발표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발표를 하면 좋을까?” 엄마가 저녁상을 차리면서 물어보셨어요.

이스턴은 같은 반 친구들이 웃던 모습을 생각했어요. “교회에 관해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스턴이 말했어요.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지안마르코와 피노토 자매님도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 저녁 먹고 내가 전화해 볼게.”

다음 날 피노토 자매님이 지안마르코와 함께 집에 오셨어요. 먼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어요. 엄마가 함께 나눈 생각을 모두 공책에 적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선지자, 성전 그림을 찾아서 보드지에 붙였어요.

마침내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스턴은 지안마르코와 엄마 두 분과 함께 교실 앞에 섰어요. 이스턴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스턴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교회에 관해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설명했어요.

지안마르코가 경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선지자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피노토 자매님이 가정의 밤에 관해 이야기하셨어요. 이스턴이 침례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멋진 발표였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자 이스턴은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무도 저번 때처럼 웃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발표를 맘에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이스턴은 반 친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이스턴은 빙긋이 웃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

글쓴이들은 독일 바덴뷔르템부르크와 미국 유타주에 산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가족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President Russell M. Nelson,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Identity, Priority, and Blessings,” *Ensign*, Aug. 2001, 11.

재능을 나눔

머리사 위디슨과의 인터뷰에서 발췌,
교회 잡지

올라!

제 이름은 앨리스예요.

저는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저의 빛을 비추려고 해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앞에서 가족과 함께

1. 찬송가 연주

저는 브라질에서
부모님과 언니, 남동생과
함께 살아요. 언니
줄리아와 저는 와드
성찬식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행복한 느낌

감사함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는
성신의 행복한 느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2. 뜻밖의 선물

어느 일요일, 스탈키 형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은 일요일마다 반주하는 우리에게 주는 감사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자를 여니, 안에는 특별한 플루트가 들어 있었어요! 플루트를 조립해서 붙어 봤어요. 저는 그 소리에 반해 버렸어요.

3. 돌려주기

저는 곧 플루트로 찬송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스탈키 형제님에게 감사 선물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혜와 사랑”이라는 찬송가를 연습했어요.(찬송가, 107장) 아빠께 부탁드려서 스탈키 형제님 댁으로 갔어요. 형제님이 주신 선물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었거든요.



4. 특별한 꿈

스탈키 형제님을 위해 연주했더니 그분은 정말 행복해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날 밤에 이 찬송가에 관한 꿈을 꾸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님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별을 보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 들려주세요! 별을 올려서 여러분이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때에 관하여 적어 보세요. 부모님께 여러분의 별 사진을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나요?

찬송가 한 곡을 부르거나, 연주하거나 지휘하는 법을 배우고 가정의 밤 시간에 나눠 보세요.

재능을 갈고 닦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나의 아이디어: _____



행복의 계획

그림에 색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관해 배워 보세요!
또 그림을 오려서, 마주보는 그림의 뒷면은 풀로 붙이고 가장자리는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여 작은 책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태어나기 전에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구주가 되어 주시겠다고 자원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어요. 그분은 저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분은 제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 태어났어요. 저에게 몸이 생겼죠! 제가 배우는 동안 제 영과 몸은 함께 일해요. 매일, 저는 친절하게 행동하여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저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릅니다.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제가 실수하면, 회개하고 다음번에 더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저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늘 부모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여전히 그분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경전도 읽을 수 있어요. 언젠가 저는 성전에 갈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관해 더 많이 배울 거예요. 성전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에요.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죽으면, 제 몸은 땅에 남겠지만 제 영은 영의 세계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제 몸과 영은 다시 결합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가족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행복의 계획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며, 제가 스스로 이 사실을 알았듯이 여러분도 이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님의 가르침”,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90~93쪽에서 발췌.



피터 에프 웨르
장로
칠십인 정원회

계속 노력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터서 12:27)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호주에 있는 작은 지부에 다녔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찬송가 몇 곡만 칠 줄 아셨죠. 저도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지부 회장이 저에게 교회에서 반주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반주할 때, 저는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실수할 때면 저는 울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고 쉽게 긴장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찬송가를 잘 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피아노 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모든 찬송가를 다 칠 수 있지요.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저는 작은 지부에서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 지부에는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 년 동안 제가 오르간과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 내려 노력했던 것이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거렸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끔 간증하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신권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저는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긴장이 되기는 합니다.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갈 때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강한 영이 있었습니다. 고양되고 침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이 수줍음이 많거나 말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

연차 대회 인용문 카드

지난 201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나온 몇 가지 주옥같은 문구를 소개합니다!

“신앙은
항상
두려움을
이깁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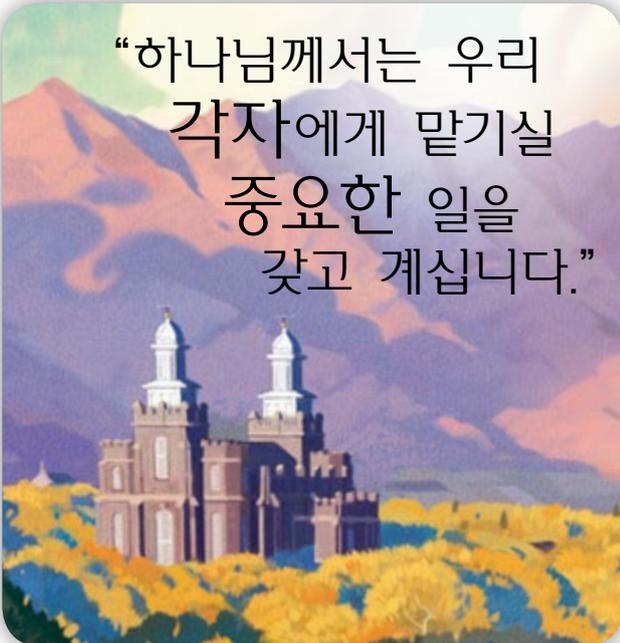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쉐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중요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존 시 핑그리 장로

“여러분의 빛을
밝히시겠습니까?”



우리들 이야기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갈 때마다, 영을 강하게 느껴요.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분이예요. 저는 성전에 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알라나 엘, 8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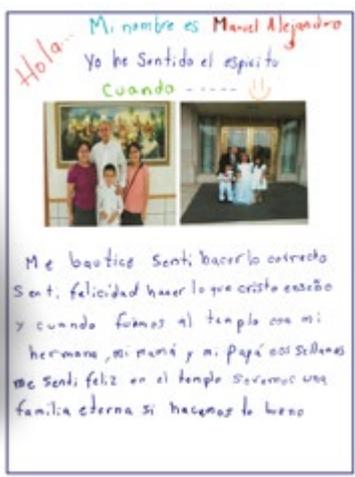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비앙카 브이, 7세, 콜롬비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물몬경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제 동생은 기도하기를 정말 좋아해요.

벤하민 엠, 3세, 호아킨 엠, 8세, 칠레



저는 침례받을 때 영을 느꼈어요. 그래서 옳은 일을 선택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때 행복했어요. 누나, 엄마, 아빠와 함께 성전에 가서 우리는 인봉되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옳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될 거예요.

마누엘 알, 9세, 엘살바도르

아담과 이브

김 웹 리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들은
땅과 바다, 해와 별을 만드셨죠.
식물과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렇게 지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구에서
살도록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셨을까요?



아담과 이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자랐어요. 일할 필요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중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그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자, 이브가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지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날 것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의 일부였어요. 에덴 동산을 떠난 후, 아담과 이브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키우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들은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것은 더 힘들었지만, 그들은 새롭고 중요한 것들을 배웠답니다. 그들은 행복했어요.





저도 아담과 이브와 같아요. 배우고 성장하여 저의 하늘 부모님과 같이
되기 위해 지상에 올 것을 선택했어요. ■

나는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2보좌

복음은 모든 진리를 망라합니다

우리가 보는 나뭇잎은 광활한 숲 일부를 찍은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한없이 흥미로운 지식의 숲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배운 교훈에 굳건한 기반을 두면 우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본받게 될 것입니다.

작고한 소설가 마이클 크라이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나무의 일부임을 모르는 나뭇잎과 같다.” 역사는 우리에게 나뭇잎뿐만 아니라, 나무의 잔가지, 줄기, 몸통, 뿌리에 관해서도 알려 줍니다. 이러한 역사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필멸의 존재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약점 중 하나는 “나뭇잎”이 전부라고, 다시 말해 우리가 아는 진리가 완전하며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 이디시어 속담에는 “고추냉이 속에 사는 벌레에게, 세상은 곧 고추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받아들이는 진리는 나뭇잎을 넘어서며, 분명 고추냉이도 넘어서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진리를 망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과거와 현재의 진리는 물론이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날 일에 관한 진리도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진리 중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제자의 길을 배웁니다. 그 길은 평범하고 결점 많은 필멸의 존재가 영광스럽고 불멸하는 무한한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 존재가 지닐 신성한 잠재력은 우리의 미약한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진리입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값지며

가장 높은 반차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진리를 망라하며, 이는 또한 이생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을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처를 막론하고 모든 진리를 포용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진리가 주어질 것,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신약개조 1:9) 가르치는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계속 발전한다는 것과 우리가 보는 나뭇잎은 광활한 숲 일부를 찍은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한없이 흥미로운 지식의 숲에 있는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2014년 3월 7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브리검 영 대학교 교회 역사 심포지움 말씀, “Seeing Beyond the Leaf”에서 발췌.



아담과 이브,
파나마 산블라스 제도의 쿠나족 인디언이
만든 직물 공예

아담과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필멸의 인간이 되었다. 이브는 이에 따른 축복에 대해 간증했다. "...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모세서 5:11]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



끔찍한 지진이 일본의 한 선교부 지역을 강타했으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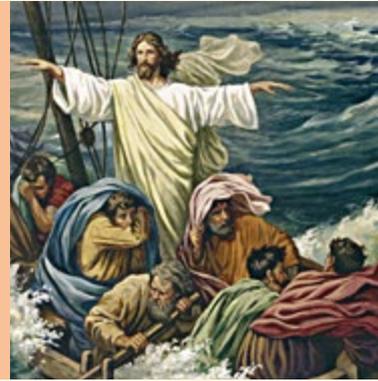
44쪽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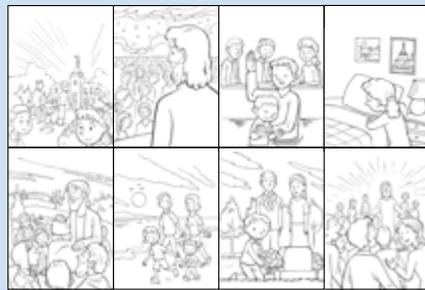
50쪽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근원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내적 평안의 희망을 주신다.



어린이



행복의 계획

이 소책자를 잘라 색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에 관해 배워 보세요!

7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